

치의신보

제2429호 | 2016년 7월 7일

치협 '가정치의학과' 절대 수용 못한다

치과계 내부 합의 무시 신설전문과 본질 왜곡
복지부 요식행위 회의에도 강하게 불만 표출
전국 회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힘 모을 때

■ 명칭변경 관련 기자간담회

“(가칭)통합치의학과를 가정치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치협과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는 지난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가칭)통합치의학과의 명칭 변경 수용 불가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가칭)통합치의학과를 가정치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긴급히 열렸다(사산).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1일, 28일 두 차례 회의에서 (가칭)통합치의학과에 대한 명칭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결정하고 복지부에 명칭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난 6월 29일 전달했다.

통합치과학회도 (가칭)통합치의학과에 명칭 변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명칭은 치과계 합의안

윤현중 통합치과학회장은 “대학병원 내에 통합진료과라는 명칭 하에 통합치과전문의임상의란 이름으로 2006년부터 10년간

350명의 수련 수료자가 배출됐고, 현재 19개 수련기관에서 60여명의 수련의가 교육받고 있다. 또한 치협 주도하에 6000명의 치과의사들이 통합치과전문의임상의 수료증을 받아 2년 전부터는 자격갱신 교육과정이 진행중”이라면서 이미 통합치의학이란 명칭이 제도권 하에 공식 통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입법이고 시차과계 합의를 가장 중요시한다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보건복지부 뜻을 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역사적으로 통합치의학과만큼 공직과 개원의, 학생까지 통합된 의견을 보인 예가 없다. 학회 인준 시에도 27개 학회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바 있다.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무시하고 신설전문과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통합치과전문의임상의라는 용어는 과거 신문광고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명칭 공모를 시행하는 등 이미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며 “130임종 의결과 배치된 입법예고를 발표한 데 이어 총회 당시 결의된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현 상황에서 변경하는 것은 치과계의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한다”며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견 수렴을 한 회의에 대해서도 불만이 표출됐다. 당시 4명의 회의 참석자는 K 교수, S 교수, P 교수, L 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섭 협회장은 “의과의 경우 가정의학과가 미수련자를 위한 신설과목으로 활용됐는데 치과도 의과와 같은 잣대로 가정치의학과를 사용하자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은 하나의 과 전문인데 반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통합된 치의학의과가 아니냐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치의학, 학문적 모순

또 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을 대체해 도입하고자 하는 가정치의학 용어에 대해서는 학문적 정체성을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가정치의학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문과목명”이라며 “의학 분야 중에 가정의학과인 ‘Family Medicine’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의학 분야인 반면 통합치의학과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dvanced General Dentistry’ 과정의 한글 명칭이다. 가정치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학문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앞으로 세계적 학문교류나 발전에 크게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최 협회장은 “치협은 언제, 어느 때든지 회원의 뜻이 모아지면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회원들이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극소수 몇 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회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남섭 협회장, 윤현중 통합치과학회장을 비롯 박영섭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41th
Since 1975 **41년! - 정직한 회사**

CE SGS CE PC
ISO 14001, ISO 9001, ISO 13485 Certified Company

국내 최초 ASME(USA) 인증 취득!

세계 1등에 도전합니다!

New Small Steam Sterilizer

CE0044
B
CLASS
EN13060

HS-1607BL
HS-2522BL
HS-3035BL

CE0044
S
CLASS
EN13060

HS-1607SD
HS-2522SD
HS-3035SD

- ✓ 무히터 Chamber - 외부 스팀 제너레이터 방식.
- ✓ 무응접 Chamber - Chamber 수명 연장.
- ✓ 저수통과 회수통의 분리 - 멸균물의 재오염 방지.

“의료기 시험기관, 연구소, 의과대학 등에서 신청하시면, 일정기간 무상 대여해드려 품질평가를 받겠습니다!”

한신메디칼주식회사
HANSHIN MEDICAL CO., LTD.

영업부 직통 : (032) 500-8846 www.hanshinmed.co.kr

광주: (062) 572-9041
원주: (033) 764-7644
충북: (043) 233-7892
제주: (064) 713-6735
전북: (063) 905-4263
종로: (02) 2277-8670

부산: (051) 583-4528
경남: (055) 252-4315
대구: (053) 742-1016

환자의 안전을 생각한 국소마취제의
이상적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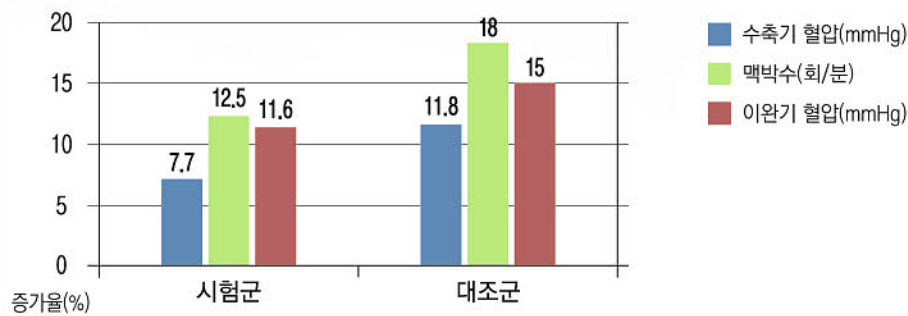
휴온스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주 1:200,000

국내최초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한 1:20만 국소마취제 효과와
심혈관계 부작용 개선을 입증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치과대학병원) (가나다순)

▶ 1 : 20만 주사제의 1 : 8만 대비 국소마취효과 :
통계적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없음

평가항목	시험군	대조군
마취 발현시간(분)	5.2	4.9
마취 지속시간(분)	182	184
마취 2시간 후 통증(VAS, mm)	21.1	17.3
마취 4시간 후 통증(VAS, mm)	35.7	38.8
마취 6시간 후 통증(VAS, mm)	38.3	34.7

▶ 1 : 20만 주사제는 1 : 8만 보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함이 통계적으로 입증



Ref. 휴온스임상연구보고서, 하악 매복 제3대구치 발치 환자 대상 2% 염산리도카인주의 에피네프린 농도에 따른 국소마취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교차, 제 4상 임상시험. (2016. 2. 16)

주1) 1:8만 (대조군) : 리도카인염산염 20 mg, 에피네프린 12.5 µg
주2) 1:20만 (시험군) : 리도카인염산염 20 mg, 에피네프린 5 µg

● 보험약가 : 356원/1ctg



※기타 문의사항은 휴온스 마케팅실(070-7492-5284)로 문의바랍니다.



기공소, 요양급여기관 지위 획득 목적있나?

치기공협 대국민 홍보성 광고 논란
보철물 제작주체 등 오해소지 많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공협)가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한 이미지 광고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보철물의 제작 주체를 치과기공사로 명기하고, “국민 건강보험료가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광고를 제작, 보철물의 제작주체, 보험급여기관 자격 등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대응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치기공협의 김춘길 회장은 올해 초에도 일부 의료전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는 요지로 치협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일단 보철물의 제작은 현재 법령상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제작하게 돼 있는데, 이 광고만 놓고 보면 기공물 제작의 주체를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로 오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3에는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협은 치기공협의 이 같은 홍보활동들

통일시대, 남북 면허통합 묘안은?

통일준비위 면허통합방안 간담회
최 협회장 치의학 통합방안 발표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혜·이하 통일준비위)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보건 의료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월 29일 더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통일준비위 ‘평화통일 통일공감대 형성 2차 보건 의료 영역 간담회’에서 치협을 비롯한 각 보건 의료단체는 직능별 면허통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최남섭 협회장은 치협을 대표한 기관발제자로 나서 남북한 구강 보건 의료제도의 비교, 현황 등을 좌중들에게 설명하고, 면허통합의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최 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 간에는 의료문화 환경, 의학용어, 교육과정의 차이 등 면허통합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면허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의료의 질 보장, 북한 의



료인력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적정 수급을 위한 객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이 면허통합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치과의사 예비시험제도 활용 ▲가칭 ‘면허자격심의회’ 설치 운영 ▲탈북 보건 의료인력 면허관리 ▲치의학 교육 통합 ▲보건 의료인력제도 통합 등이다.

이를 위해 최남섭 협회장은 “북한 치과계와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 이탈 구강의사의 국가고시 매뉴얼, 재교육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남북 공동의 치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영갑 기자

이 궁극적으로 ‘보험급여 청구기관’에 상응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이다.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치기공협의 오랜 숙원이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에서부터 이런 일련의 홍보활동까지 궁극적으로 치기공협이 노리는 것은 직접 보험급여를 수령하

는 ‘요양급여기관’의 지위획득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지위에 대해서 명시한 국민 건강보험법 제42조, 제47조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기관은 의료법이 정한 기관에만 국한된다. 치과기공소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치의학 교류를 함께하는 출판사”

M 명문출판사

치의학서적 주문 및 출판문의
02)2248-7586

www.teethbook.co.kr

www.shinwonsop.com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염의 수술적 처치는 코메트 임플란트 주위염 키트로!

- 티타늄 임플란트 픽처 표면의 클리닝 및 스무딩
- 롱샹크(FG LS/총 길이 30mm)로 시약 확보 및 구강내 접근 용이
- 하이스피드용(FG), RPM opt. 40,000 ~ max. 80,000
- Egg/Flame 27지 웨임, 014/023 2가지 사이즈
- medium(빨간띠)/ultra-fine(흰띠) 27지 거칠기

임플란트 주위염 전용키트 | Peri-implantitis Kit **NEW**

코메트디엔아이코리아(주) T.(02)3788-9500



Snap Quick

Ball Attachment 출시예정!!



Male & Female Set 가격
39,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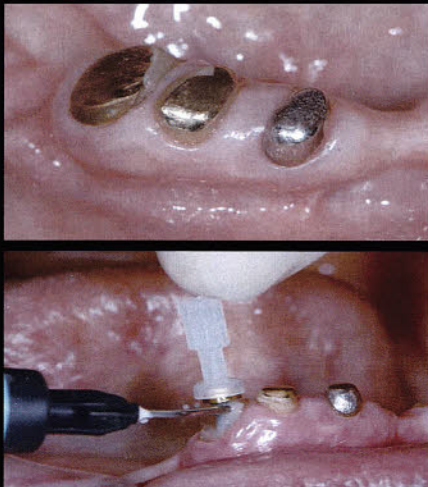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만족스런 가격으로
선봉적인 인기를 얻어 절대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Overdenture Attachment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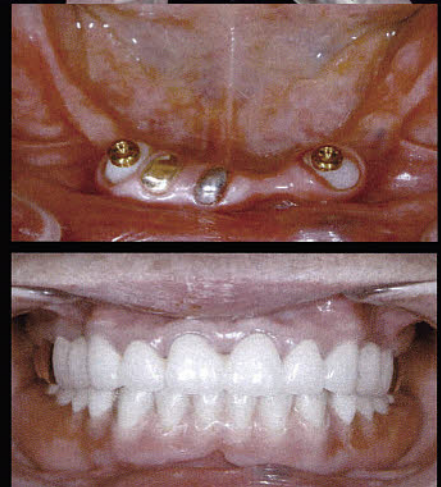


- 維持部のメールキャップは簡単に交換出来ます。
- 維持部の遊びが、義歯の沈み込みや側方の力に対応します。
- 歯根に直接接着できます。

Root형을 이용한 Partial Denture



Dr.Matsumoto가 자연치아용과 식립된 임플란트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0 Retention - Yellow Cap



상·하악 총의치 또는 부분 의치로도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한 만능 오버덴처
시스템을 만나보십시오.

“국내·외 1,200여 가지 사이즈의
모든 임플란트와 호환 가능!!!”



Mini



DENTIS OneQ 3.0mmD
& Neo-Biotech 3.5mmD
등의 Mini-implant와
호환되는 KERATOR
Attachment를
공급해드립니다.



별도의 기구와 임플란트를 구매할
필요없이 사용 중이신 Mini-implant
를 이용하여 손쉽게 Overdenture
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Abutment Cuff 높이 : 1,2,3,4,5,6mm)

- 골폭이 4mm정도인 case이거나
flapless로도 시술가능.
- 임플란트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안전하고 적합한 유지력

★★ Implant & Root 혼합형
모델 판매중★★



실제 제품 사용
(Dummy 아님)

28만원



Crown plier

손쉽게 Temporary Crown을 이탈착할 수 있으며,
Silicon Tip으로 Crown 표면을 보호합니다(추후
Tip 교체가능/Tip소독가능)가장 많이, 널리 판매
되고 사용되는 Chairside의 필수품!!



※ Silicon Tip이 쉽게 찢어지는
모조품 주의바랍니다.

(주)대광 I.D.M 02)3783-7041~3, 010-5222-9419

NAVER 케라토 검색 ※ 검색창에 케라토를 쳐보세요! 주문이 간편해집니다!

www.KERATOR.com 친절한 방문상담(실습 가능)

지역 대리점 • 대구 대리점 한양치재 053-654-2704 • 광주·호남 특약점 덴탈하우스 010-6379-6423



브렉시트 쇼크, 치과계 파장은 어떨까?

재료대 상승·환자 소비 심리 위축 우려

경제전문가 “단기 영향으로 끝날 것 지나친 우려 자제”

지난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세계 거시경제지표 변화양상에 치과계도 긴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세계 경제 불안이 일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치과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환율 폭등, 금값 상승 등으로 재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재료 및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업체들은 브렉시트 여파가 더욱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다.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강남의 한 원장은 “지금은 비수기라 아직은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수입해 사용하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요동치는 환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벌써 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골드 인레이 등 치과 재료가격이 오르면 개원가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환자들이 큰 돈 드는 치료는 미루는 경향을 보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과경영 전문가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의원)은 “거시경제 불안이 개인들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줘 네거티브한 소비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양상도 선택성 치료인 치과분야를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며 “작년 메르스 사태는 일시적인 환자 감소로 끝났지만 경제 불안으로 인한 환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 문제”라고 밝혔다.

외산 치과재료 및 장비 수입업체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달러, 엔화 환율상승이 당장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마진률 10% 정도 떨어졌다

GC 코리아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는데 수입 단가가 올라가 마진률이 10% 정도 떨어졌다”며 “이렇게 되면 유저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격경쟁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상황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산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본사에서 이를 배려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다. 상황을 보며 물량관리에 더 신경을 쓰려 한다”며 “수입단가가 계속해 오르면 기존의 프로모션 수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곧 거시경제지표들이 브렉시트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의 한 전문가는 “영국 파운드화가 유로화와는 분리돼 사용돼 왔고, 최근 들어서는 기축통화(국가 간 무역에 사용되는 중심화폐)에서도 제외될 만큼 파운드화의 영향력이 낮아져 있다”며 “영국이 금융 쪽으로 세계 혜택을 많이 줘 유럽의 금융허브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곧 EU의 정책적 지원 아래 네덜란드 등 주변국이 같은 혜택을 주며 영국에 있던 주요 금융기관들

을 유치할 것이다. 영국의 이번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안전자산으로 급등했던 달러와 엔화 환율도 2주 내 브렉시트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 브렉시트 이전 1150원 선이던 달러 환율이 23일 브렉시트 결정 후 몇일 사이 1200선을 위협하는 등 급등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6월 30일 1151.8원으로 마감하며 브렉시트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올랐던 엔화와 금값도 다시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또 최근 유럽경제에 대한 낙관적 해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한 사회학자는 “이번 브렉시트는 결국 영국만의 고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치과계는 브렉시트 결정의 원인이 됐던 이민자 증가 문제, 이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대처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lydental.co.kr

치의신보

1966년 12월 15일 창간

발행인 최남섭 · 편집인 이충규 [http : //www.dailydental.co.kr](http://www.dailydental.co.kr)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3층 치의신보

광고접수 02) 2024-9290 e-mail : kdapr@chol.com

치의신보 02) 2024-9200	협회사무처 02) 2024-9100
편집국 02) 2024-9210	총무·정통 9110 재무 9120
구인광고 02) 2024-9280	법제·대외 9130 의료광고·고충 9250
주소이전 02) 2024-9100	군무·자재·문화·경영 9140
F A X 02) 468-4653	학술·수련고시 9150 보험 9160
e-mail kdanews@chol.com	홍보·치과방송 9170 치의학회 9189
	치무·기획·국제 9180 AGD 9197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등록번호:서울다0718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1:1 전국 방문 상담

닥터론

성공을 위한 개원상담 (금융/입지/세무/노무)

당타행 신용한도 최대 15억 | 최저금리 2.98%



1:1 맞춤컨설팅 방문상담(전국)담당자
유준영팀장 | 070-7780-9246

각 은행별 한도 및 금리비교
엘자산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622호 | 엘 자산관리본부(주) 130-86-65837 | TEL 02-3439-0530 | FAX 02-3439-0533



우리 선생님이 먼저 찾는 알지네이트 ~!
NEW ALGISTAR+

물과 잘 섞여서 믹싱하기 쉬워요~

냄새가 안나 환자들이 편안해요!

가루가 날리지 않아 깔끔하네요!

러버인상재 처럼 인상이 아주 잘 나와요~!



SSS NEW ALGISTAR+
포장단위 : 1kg

스텝 출산휴가 걱정말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어요

치협, 올해도 사업주단체 선정 지원 받아

치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 안내, 교육·홍보, 우수사례기업 발굴·전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문화개선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주단체는 치협을 비롯해 경기경영자총협회,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다.

치협은 지난 6월 16일 노사발전재단과 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계기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선택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월 40만 원에서 60만원까지 더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관련업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특히 여성일자리가 많은 치과분야에 적합한 정책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여성의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결과 치과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병·의원과 같은 여성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주요 내용

- ☑ 주당 15~30시간 이하 시간선택 근로자 고용
- ☑ 1년간 근로자당 최대 월 인건비 80만원, 노무비 20만원까지 지원
- ☑ 페이타터도 적용 대상
- ☑ 치과중사인력 최소 3명까지 지원
- ☑ 사회보험 등 기본근로조건 보장돼야 신청 가능
- ☑ 치과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



력 퇴사 사유는 결혼·출산·육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평균근속년수가 3.5년 수준이며, 평균 직업수명이 약 5~6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치과계의 관심이 높아 신청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해 약 500여개 기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전환형에 더 초점 맞춰 지원

치협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초기도입을 위한 홍보사업에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협과 재단은 기존 근무인력의 유휴인력 전환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형’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키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책방향은 신규인력 창출보다는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환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밝혔다.

남지민 재단 선임연구원은 “시간선택제 사업은 작년과 지원내용이 똑같다”며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지원제도”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크게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눠 지원되며, 재단은 신규형 지원을 줄이는 대신 전환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신규형도 신청할 수 있다.

전환형은 기존 전일제 근무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1명당 최대 월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장려금으로 인센티브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며,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대체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도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재단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경우 전문적인 컨설팅

사 설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뚱맞게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는 ‘통합치의학과’의 명칭을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부의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앞 항의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무리하게 용어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복지부에서는 치과계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정치학과로 변경을 요구해 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치협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두 차례나 회의를 열고 일부 몇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명칭 변경을 추진하려는 데 기가 찰 따름이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한데 이어 명분도 근거도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칭 변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복지부가 그토록 원하는 치과계 전체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분명함에도 복지부의 안이한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와 함께 치과계의 대의적인 합의를 무시하면서 복지부를 부추겨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몰두하고 신문고에 민원 넣는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치과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치졸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복지부의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치협과 대한통합치의학회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칭 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은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한 치과계의 반발과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법에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복지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복지부는 치과계의 또 다른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명칭 변경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다. 신청은 치과병·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 참

여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심평원서 민간기관으로

행자부 ‘자율규제단체 지정’ 행정예고

희망 단체·개인, 협의회 심의 후 지정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이

하 행자부)는 지난 6월 29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행자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정

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수행실적 점검,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장관은 산하에 자율규제협의회를 두고,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율규제협의회는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취소하거나 활동평가 등을 수행하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 자율규제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길 희망하는 협회나 회, 단

체 등은 협의회의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활동,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컨설팅, 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행자부는 전문인력 파견, 교육,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기

관정보화지원협의회(이하 요정협)가 심평원과 함께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요정협에 참여하고 있다.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치협은 암호화솔루션 협약 등의 업무를 통해 자율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자부의 자율규제 단체 지정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영갑기자

18세 이하 홈메우기 본인부담 10%로 감면

건정심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내년 7월부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10%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

성 강화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보험적용이 돼온 치아홈메우기는 충치발생을 예방해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상연령(만6~14세→14세 이하→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 어금니→제1,2큰 어금니)를 점진적

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15년 실수진자는 72만3922명, 1인당 평균진료비는 9만6513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 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의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한다”면서 “이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7년 건강보험료가 2009년 이후 8년 만에 동결됐다. 또 보험료 동결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해 2017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7월) 및 정신과 외래 상담(10월) 본인부담을 경감했으며 난임시술(10월), 비급여 정신요법(10월), 간 초음파 검사(10월)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새롭게 확대 적용했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적정 수가 보상”, “수가협상시스템 개선” 필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서 의료단체장 한목소리

‘2017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식’이 6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서 열린 가운데 공급자 단체장들이 ‘적정 수가 보상’ 및 ‘현행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사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후 두 번째로 전 유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체결식에는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협 등 전 유형의 단체장들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장승미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의약계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 발자국씩 서로 양보한 결과 전유형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39주년을 맞아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 그동안

저 부담, 저 급여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현재 60% 초에서 2018년까지는 최소한 68%까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7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보장율을 올렸으면 한다. 더불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등도 의약계 단체와 잘 협의해 앞으

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장들은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맞는 적정 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몇 년 만에 동결이 됐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움직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보편타당한 보험이 된다는 건보공단의 방향성, 국민들이 의료를 바라보는 높은 수준의 바람에 부합하는 적정 의료제공,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가 문제가 상당히 필요한 화두”라고 강조, “적정 수가를 통한 적정 부담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성상철 이사장님께서 양질의 의료를 위해서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저희들의 바람 역시 바로 그 부분이다. 적정 급여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의료인들에 대한) 적정 보상이 따라야 한

다”면서 “건보공단이 적정 부담이 있어야만 적정 급여가 이뤄진다는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최선을 다해 지지와 후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장들의 의견도 나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급자나 계약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공급자와 보험자가 다 같이 노력해서 수가협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영 병원협회장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는 유구무언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지도 모르겠고 현재의 수가협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수가협상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및 17조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 등을 고려해 8134억 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된 가운데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타결됐다.

강은정기자

임플란트·골드크라운 비급여 진료비

7월부터 확인 자동전산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임플란트, 골드크라운 등 39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해 이달부터 자동전산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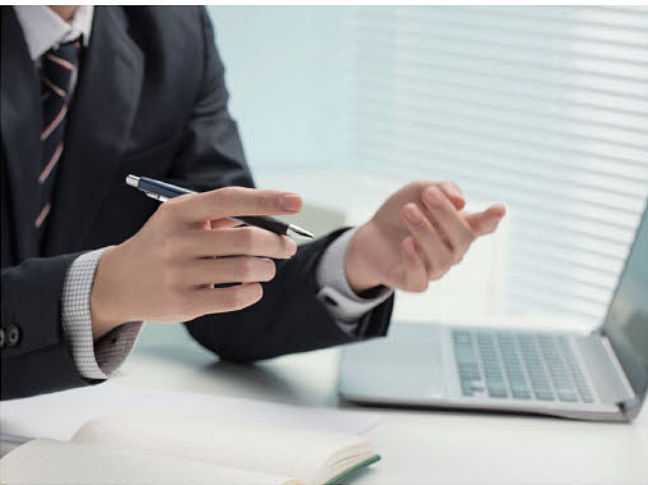
39개 항목은 임플란트, 골드크라운, 일반·상해·장애·병사용 진단서, 확인서, 사본발급(paper), 건강검진 등이다.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

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게 된다.

하지만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 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추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 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 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 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기자

“회원 위한 엄정한 판단 기대”

2016회계연도 첫 윤리위원회 회의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윤리위)가 2016년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열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

지난 6월 30일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윤리위원회는 ▲OOO치과의원 개설 관련 건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기사 관련 건 ▲서울OO치과의원 관련 건 ▲치과의사 방송출연 관련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 ▲핸드폰 절도 사건 제보 접수 관련 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이지나 위원장은 “2016년 회계연도 첫 윤리위다. 무거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회원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해안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윤리위는 이지나 부회장을 비롯, 이강운 법제이사, 김종



열, 남상범, 이상훈, 송영숙, 송영천, 정동민, 조경애가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모 회원의 1인1개소법 위반 건과 관련, 추가적인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을 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서울 모 치과의 의료인 정원 관련 의료법 위반의 건과 치과의사의 과도한 방송출연 등의 안전은 해당지부 윤리위로 반려하기로 의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해외연수 전속지도전문의의 배정공식 적용

수련고시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현실맞게 개선

해외연수를 받는 전속지도전문의도 전공의 배정공식에 대입되는 전속지도전문의수에 포함하는 안이 추진된다. 단, 전속지도전문의수가 1명 밖에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관)는 지난 6월 28일

2016년도 1차 회의를 열고 토의사항으로 ‘수련치과병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해외장기 연수에 대한 결원 규정’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사진).

현재 치과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상 결원 시 배정공식 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의과의 경우 해외연수를 위한 출장으로 1년 이하 결원 시 전공의 수련을 계속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수련고시위는 전속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전속지도전문의수에 포함하며 전속지도전문의의 평가 시 필수서류는 평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수가 1인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시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수련고시위는 각 학회별 의견을 반영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수기구 항목



의 ‘전기납착기’를 ‘전기납착 및 용착기’로, 소아치과의 ‘신체억지장치’를 ‘신체보호안정장치’로 개선하는 등 현행에 맞는 용어 및 기준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련고시위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경과조치 시행을 앞두고 전문의 시험문제 출제 시 보안강화를 위해 2차 문항개발 시 응시자는 출제자에서 제외하고 출제자들의 개인저장장치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수관 위원장은 “전속지도전문의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배정공식에 대입되는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들의 경과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문항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 수련고시국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2016년도 치과의사전문 의자격시험 1차 문항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의료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

복지부·진흥원, 전문위원 위촉·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이 전문 컨설팅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정보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역별·분야별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가 풀과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도,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대상 제1기 GHKOL 전문위원 위촉식 및 중국 해외진출 전략설명회를 지난 1일 개최, 47명의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전문위원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진흥원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내외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총 47명의 공신력 있는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CIS 10명, 중국 10명, 미주 4명, 중동 2명, 북수지원 15명이며, 분야별로는 사업화가 13명, 법·제도 3명, 금융·투·융자 2명, 북수지원 23명 등이다.

최종 선정된 제1기 GHKOL 전문위원은



국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 지역별·분야별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GHKOL 컨설팅은 무료이며, 의료기관 등 신청 후 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 후 선정되며, 진흥원에서 GHKOL 전문위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등은 진흥원(진출사업팀)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내용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희망전문가를 3순위까지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원 국제의료사업지원단장은 “민간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금융·세제 지원, 전문가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해외진출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 고삐

복지부·경찰청 공조 의심사례 17명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힘을 합쳤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5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

으며,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이 이뤄졌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www.ida.or.kr

SCIDA 2016

제10회 인천종합학술대회 치과기자재전시회

2016.9.25 (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사전등록 ~ 8월 30일까지

등록비

분 류	사전등록	현장등록
개원의(협회 등록회원)	60,000원	80,000원
비개원의(페이닥터, 군의관, 공중보건의)	50,000원	70,000원
개원의(협회 미가입회원)		200,000원
STAFF	40,000원	60,000원

■ 입금은행 신한 03233-12-000112 (예금주: 인천치과의사회)

주의사항

- 유선등록: 인천치과의사회 032)434-6351, 438-2828
- 송금시에는 면허번호를 성명 앞에 넣어 주십시오.
- 식사준비를 위하여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 문의 Tel. 032) 434-6351, 032) 438-2828

Fax. 032) 434-6352 E-mail. ida@ida.or.kr

보수교육 4점 인정

- 상품권 3만원 지급 전원 (본인확인후 수령)
- 참여경품 10만원 상당 제공
- 폐막경품

공동주최

IDA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INCHEON DENTAL ASSOCIATION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THE KOREAN ACADEMY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OLOGY
KDIA 사) 한국치과기자재산업협회 인천지부

9:00~9:30		등록 및 개회			
오전강의	제 1 강의실 Implant Dentistry 1 (Socket & Sinus graft 해결하기)	제 2 강의실 General Dentistry 1 (교정, 치주 고민 해결하기)	제 3 강의실 Staff lecture 1 (환자 상담 해결하기)	제 4 강의실	
9:30~10:15	Easy Socket preservation & 3D implant surgery 소개 (김현민 교수)	10:15~11:00	Special lecture 3 임플란트 및 보철을 위한 MTM (조진형 교수)	보험 들니와 임플란트! 완전정복하기 (안동국 원장)	
10:15~11:00	Special lecture 1 Sinus graft complication 극복하기 (Dr. W EricPark)	10:50~11:20	Coffee break		
11:00~11:30	Coffee break Q & A	11:20~12:10	비외과적 치주치료와 유지관리 (김도영 원장)	치위생사 강의 1 결정적 순간의 의료 상담 포인트 (김윤정, 브레인스펙 공동대표)	교양강좌 요리하는 아빠 엄마 (안영미 강사 휘슬러 코리아) Live 요리 및 시식 3~40명
11:30~12:15	Crestal approach for flapless surgery through logical concept (왕재원 원장)				
12:15~1:30	Lunch	12:15~1:40	Lunch	Lunch	Lunch
오후강의	제 2 강의실 Implant Dentistry 2 (노인환자 임플란트 및 Digital Dentistry)	제 2 강의실 General Dentistry 2 (보철, 보존 고민 해결하기)	제 3 강의실 Staff lecture 2 (Co-work for Implant Dentistry)	(위기 상황 해결하기)	
1:30~2:15	Special lecture 2 Current opinion on MRONJ (이정근 교수)	1:40~2:30	근관치료시 complication과 solution (최성백 원장)	위생사 강의 2 임플란트 수술 준비 (조현영 교수)	치과응급상황 대처법 및 AED-CPR 실습 (현성열 교수, 가천대 응급의학과 / 외상외과)
2:15~3:00	소수 임플란트를 이용한 가철성 수복 (성무경 원장)	2:30~3:00	Coffee break		
3:00~3:30	Coffee break Q & A	3:00~3:50	Special lecture 4 성공적인 레진 접착/수복 (최경규 교수)	치위생사 강의 3 임플란트 보철 준비 (서정민 원장)	의료사고시 실제 사례와 대응방법 (이강준 대처 법제이사)
3:30~4:15	Digital surgical guide를 활용한 난 case의 쉬운 접근 (염문섭 원장)				
4:15~4:30	구연, 포스터 심사 및 시상식				
4:30~5:00	경품 추첨 및 폐회				



김미애
K치과병원 대표원장

Mongolia (I)에 이어...

새벽 1시 몽골 징기스칸 국제 공항을 떠난 버스는 영하 20도의 사막을 밤새 달려 옴노고비주 달란자드시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간간히 눈을 비비며 좌우 창밖을 보았지만 끝없는 평평한 하얀 겨울사막외에는 보이질 않았다. 비몽사몽 몇 시간을 잤는지, 이시형 박사님께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나를 깨우신다. 눈을 떠보니, 내 눈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끝 지평선에서 이글이글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와아!! 하고 차 안에서 자던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감탄사,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대장관이였다. 몽골의 후에 징기스칸은 저 이글거리는 태양의 정기를 받으며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불태웠으리라... 이렇게 가슴벅찬 광경은 처음 찍어본다고 KBS 촬영 PD님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를 않고 셔터를 누르고 계셨다. 잠시 차에서 내려 사진을 더 찍고 싶었지만 아침 병원 개원식 시간에 맞춰 준비한 여러 공식 일정을 다 소화하려면 단 십분도 지체할수 없다는 주 정부 관계자분의 양해를 들으며, 아쉽지만 차 안에서 맞은 사막의 여명으로 만족을 해야했다.

보통은 4시간 걸리지만 귀한 한국 손님들, 더구나 85세 넘으신 이시형 박사님의 건강을 걱정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설명을 들으며 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사막의 모래를 가르며 차 한대가 오더니 우리 차를 가로 막았다. 알고보니 달란자드시 국립병원 엔크만다크병원장님께서 한국 손님을 맞으러 새벽길을 달려 오신 것이다. 작년 5월, 서울에서 협력병원 조인식, 기증식을 하고 일년만에 만난 병원장님, 잠시 차를 세우고, 영하의 사막에서 환영인사를 나누고, 병원장님의 차가 우리들을 콘보이하여 또 한시간을 달려 도착한 사막 한 가운데, 온통 희뿌연 회색 모래로 뒤덮힌 작은 도시, 심한 사막바람으로 눈을 뜰수 없고, 살을 에이

는 칼바람의 추위는 잠시도 서있을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칼바람을 이겨내며 살아가려면 몽골사람들은 강인한 체력을 가질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GOBI SANDS 호텔은 기네스북에서 기획한 "1000마리 낙타레이싱" 촬영으로 외국손님들로 꽉 차있었다. 매년 낙타달리기 대회는 열리지만, 올해는 특별히 1000마리의 낙타를 모아 이 광활한 사막에서 레이싱 하는 것을 기네스북에서 찍는다고 한다. 나중에 들었지만 며칠 밤을 새워 몽골사막 전역의 1200 마리 낙타들이 모였고, 9시 병원개원식을 가야해서 기네스 행사는 다보지 못했지만, 줄지어 가는 낙타들의 행렬 또한 장관이었다. 길이 없는 그 넓은 사막,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는지 참으로 신기했다.

에이맥 주정부 국립병원, 낡은 회색빛 초라한 3층 짜리 건물, 기증하고 일년동안 기다리며 머리 속으로 그려온 병원은 내가 생각했던 거 보다 더 열악한 상태였다. 도착하니 이미 환자들로 치과병원은 북새통이었다. 치과가 없는 주정부 종합병원에 내가 기증한 4대의 유니트체어와 CT, Panorama로 치과병원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에 사는 모든 환자들이 밤을 새워 치료받으러 온다고 병원장님의 추가 설명을 들으며, 열악한 몽골인의 구강건강에 내가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으로 먼 길 온 피로가 다 사라져버렸다. 기증식과 개원식을 끝내고 무료진료를 시작하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환자들이 한꺼번에 진료실로 몰려 또 한 바탕 난리가 난다. 전 화예약이 없는 몽골 병원은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는데, 병원이 문 열기 전부터 병원 밖에서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며 번호표를 받는데, 수십명이 하루 종일 치료를 기다리기도



하고, 종일 기다리고 차례가 안되어 치료를 못 받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온다고 한다. 예약시간 보다 십분 만 기다리게 해도 불평을 하는 한국 환자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순박한 몽골인이다. 오전 내내 몰려 든 환자들을 진료하고, 오후에는 사막에서 몽골 전통집 "게르" 에서 사는 유목민들의 구강검진을 하러 가야해서 마음이 바쁘다. 몽골 치과 치료는 이제까지 아픈 치아를 빼는 것이 대부분의 치료이어서, 제1대구치가 상실된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팠다. 난생 처음 치과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인데 울지 않는 것, 또한 한국어린이들과 많이 달랐다. 육식을 주로 하는 몽골인의 치아 상태는 예상 외로 너무 나빴다. 성인들 대부분은 발치한 영구치 부분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나마 FLIPPER 수준의 부분틀니를 사용하고 있었고, 심한 충치도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빠질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구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몽골인이 대부분이라 몽골에서는 예방치과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끼고, 근무하는 몽골치과의사들에게 현지상황을 체크하고 다음 방문에는 준비할 것들을 더 챙겨보아야겠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차 안에서 준비된 도시락을 먹으며 또 다시 사막을 달려 유목민들을 찾아간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밝게! 더싸게! 더 안전하게!

**LED조명만 바꿔도
새로 인테리어한 느낌!**

저비용, 고효율
LED조명 교체!

Most enhanced lighting solution



최고의 빛 연출



저렴한 유지비



최적의 친환경

- 저비용으로 에너지 절감효과
- 반영구적 수명, KC인증
- 100%순정품 LED소자만을 사용
- 1년 무상A/S

신광LED

제품문의 02-3281-0102
서울시 종로구 세운상가내

성장기 아동의 교정치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Ⅲ급 부정교합의 조기치료

연재 순서

- 1) 성장기 아동 정형치료(orofacial orthopedics)의 기본철학
- 2) 교정치료의 골든타임 혼합치열기 제대로 관리하기
- 3) 성장기 아동의 공간부족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4) Ⅱ급 부정교합치료의 새로운 제안: 3 No 치료법 (No Extraction, No Surgery, No Mini-screw)
- 5) Frequent mistakes: too early, or too late intervention in Class II / 2 malocclusion
- 6) MyoFunctional Therapy 시작하기

7) Ⅲ급 부정교합의 조기치료

-차봉근 교수

들어가면서

성장기 치과교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의 비유처럼 끝없이 넓고 깊은 바닷가 언저리에서 작은 조개껍질 몇 조각을 줍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6회에 걸친 연재에서 역시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주운 몇 개의 조개조각들만을 소개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미국 교정학의 한 획을 그으신 Allen G. Brodie(1946)의 아래와 같은 유명한 주장을 기억하실 겁니다¹ “골격적 부조화는 출생 전에 이미 결정된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결정된 부조화는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또한 치료를 통해 골격적 부조화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급 부정교합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증후군(syndrome)이라고 칭하는 편이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Brodie의 말처럼 부정교합만큼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없을 듯 합니다. 미국교정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에게도 잠재적으로 Brodie의 이러한 생각이 각인되고 우리는 성장기교정치료 특히 Ⅲ급 부정교합의 조기치료에 대한 회의주의적(skepsis) 견해를 가지게 된 듯 합니다.

따라서 성장 완료 후 수술적 치료에만 의존하거나(그림 1) 무리한 발치에 의한 보상치료를 시행하고 그 후 잔여성장기에 의한 재발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림2에서 보는 환자는 Ⅲ급 부정교합환자에서 잔여성장을 고려치 않고 너무 일찍 발치를 결정하여 치료한 후 곧 재발되어 의뢰된 환자입니다. 성장의 예측이 어렵다면 가급적 발치결정을 늦추거나 혹은 미래의 수술 가능성을 대비하여 상악의 편악 발치만 시행하는 것도 보상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Ⅲ급 부정교합치료에서 상악 편악발치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적응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Ⅲ급 치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해결책은 아니지요)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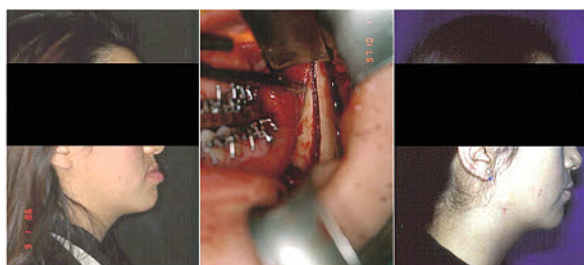


그림 1. 약교정수술 전후 측모사진과 수술장면.

가철식 장치

과개교합을 동반한 overclosure의 양상을 보이거나, 가촉력이 없는 순수한 치성반대교합(흔히 functional Class

Ⅲ라고 칭하지요)의 경우에는 간단한 가철식 장치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개선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성반대교합의 진단은 대개 혼합치열기간 중 측방치군의 공간감리를 실패하여 상악전치가 설측이동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공간감리가 가장 좋은 예방 치료방법입니다(2회, 3회 참조)(그림3). 그러나 이미 반대교합이 발생한 경우 하악을 최대한 후방으로 유도하여 제작한 간단한 inverted labial bow형태의 액티베이터가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림4).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견 치성반대교합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숨겨진 골격성 요소가 있는지는 반드시 지속적 관찰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자마다 선호하는 분석법이 있지만, 전두개저에 대한 하악체의 길이비교(Jarabak analysis¹⁾), AB to mandibular plane 각도에 의한 예후지수²⁾, 인위적인 하악골 후방유도 가능성, 상악궁 장경감소 여부의 계측 등의 방법(그림3)이 진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2. 타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로 발치를 통한 절충치료 이후 하악 골의 성장으로 재발이 일어난 증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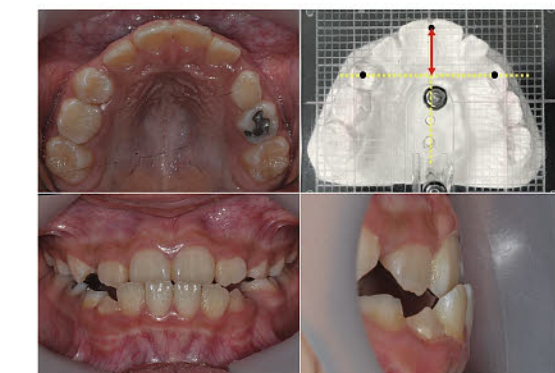


그림 3. 공간감리 실패로 상악 견치 맹출공간이 부족하다. 짧아진 상악 악궁 길이로 인해 전치부 반대교합이 발생하였다.



그림 4. Inverted labial bow 증례.

상악전방견인 장치(protraction headgear 이하 PHg).



그림 5. 상악골 견인시 사용되는 다양한 구내 고정원.

상악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이상으로 PHg에 의해 전진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재발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성장기에서 SNA가 1~2° 증가될 수 있으나 PHg를 사용하면 제 경험으로는 무려 3~4배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지요. 가히 상악에 관한 한 LeFort I 상악수술보다 더 많은 전진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주로 RME나 설측호선을 이용한 치아를 고정원으로 사용하게 되고(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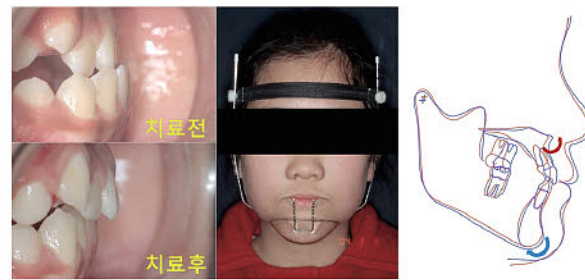


그림 6. RME protraction 치료 전후의 overjet, 측방두부계측방사선사진 중첩 결과 상악의 전진과 전상방회전 및 하악골의 후하방회전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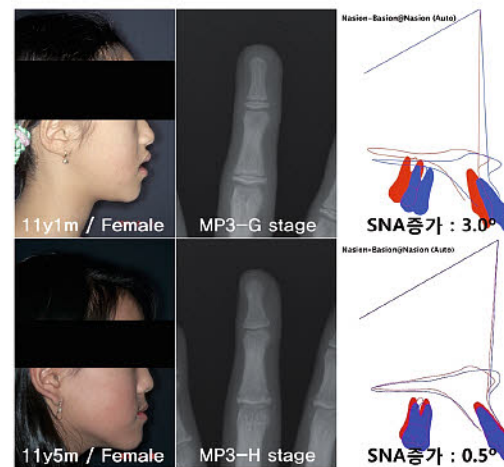


그림 7. 연대연령은 같으나 골령이 다른 두 환자에서의 상악견인술 치료효과 차이.

림5). 이에 따라 약간의 상하악 전치의 치아치조성 이동이나 구개평면의 각도가 감소, 그리고 하악의 하후방회전 등 경우에 따라 원치 않은 부작용도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그림6). 상악견인 치료시기는 약 7~8세의 어린 나이가 좋으나 중요한 것은 골령이며 저의 경험적으로 수완부방사선사진상 MP3-G stage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guideline을 잡고 있습니다(그림7).

Sander III 장치(Class III double plate)



그림 8. Sander III 증례

중등도의 상악 열성장 환자에서는 Sander III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일종의 Ⅲ급 액티베이터이지만, 유도면과 유도선에 의해 상악에 좀더 집중된 전방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PHg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중등도의 전방 견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전방견인 후의 보정장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림8).

Protraction with skeletal anchorage(이하 SAS PHg)

중안면부 열성장이 심한 경우나 치료의 적기를 놓쳤을 경우, 또는 치아치조성 이동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SAS PHg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그림9). 제가 처음 이 장치를 개발할 때는 일반외과용 미니플레이트를 infrazygomatic crest에 식립하여 견인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치료자에 의해, 특히 벨기에의 Clerck 교수 등에 의해 골격성 고정원의 다양한 형태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² 장단기 결과에 대한 결과가 기다려 지는군요.

특히 저희 교실의 SAS PHg는 상악골 뿐 아니라 안와 하 중안면부까지 전방이동이 가능하며, 최근 관찰에 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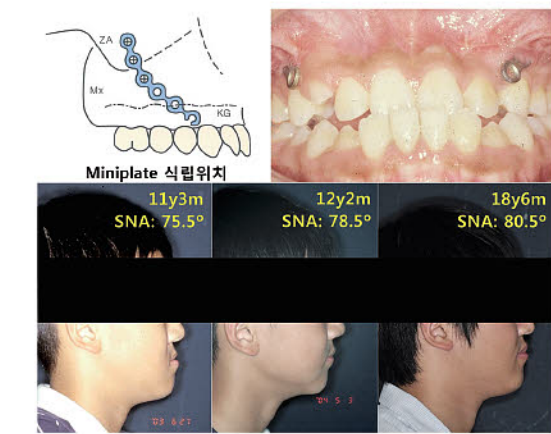


그림 9. Skeletal anchorage를 이용한 상악견인술 증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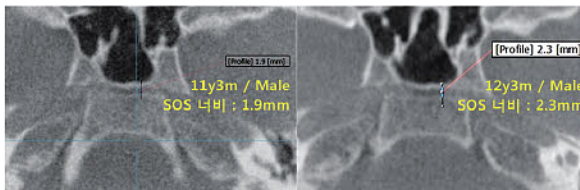


그림 10. Skeletal anchorage를 이용한 상악견인술 후 sphenoid-occipital synchondrosis (SOS)의 너비가 확장되었다.

면 두개저의 sphenoid-occipital synchondrosis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지요(그림10). 성인이 되어 양악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 특히 수술을 거부하거나 여러 이유로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술식을 적용하여 우리는 많은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³⁴

Vertical chin cup(이하 VCC)



그림 11. Vertical chin cup (VCC) 증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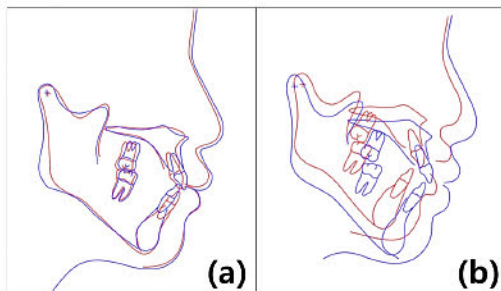


그림 12. (a) 그림 11 환자의 측방두부계측방사선사진 중첩. 하악골의 전진이 관찰되지 않는다. (b) 전형적인 골격적 Class III 부정교합 환자의 측방두부계측방사선사진 중첩. 하악골의 전방성장이 관찰된다.

일본 Tohoku 대학의 Mitani 교수팀의 chin cup 효과에 대한 장기적 연구는 chin cup이 하악골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향만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⁵ 저 역시 80년대 초반부터 chin cup 치료의 다소 실망스런 결과를 많이 경험했고 그 후 주로 기능적인 전치부 반대교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장치 설계 변화와 적절한 증례선정을 한다면 이 고전적 장치는 매우 커다란 임상적 효용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 12세 이상의 사춘기성 성장을 넘어서는 하악전돌증 환자에서 보상치료를 계획한 경우 수직적 방향의 VCC를 치료전략에 도입하기도 합니다(그림11). 이 환자는 하악전돌과 개교를 주소로 하여 내원한 환자입니다. 그림12에서의 방사선 중첩에서와 보이는 바와 같이 고정식장치와 병용된 VCC에 의해, 예상대로 Ⅲ급 하악골체의 성장능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gonial

angle이 작아지고 하악골의 위치는 후방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Ⅲ급 부정교합의 성장양상과 비교한 두개저 중첩을 참고하시면 이러한 치료방법의 효과를 명확히 대조 비교할 수 있습니다(그림12). 이러한 하악골의 후방이동에 의해 일견 좁아 보였던 상악 치열공간이 상악궁 측방확대나 하악궁 축소 등의 치료 없이 정밀하게 교합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그림11).



그림 13. 전치부 반대교합 해소 후 condyle과 mandibular fossa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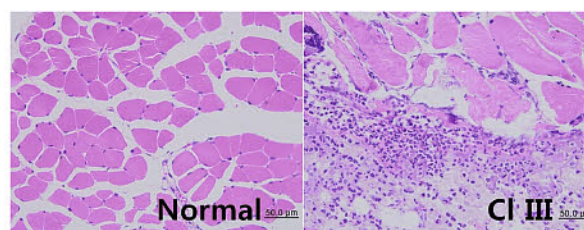


그림 14. 정상적인 사람의 교근에 비해 Class III 부정교합 환자의 교근에서 염증세포가 다수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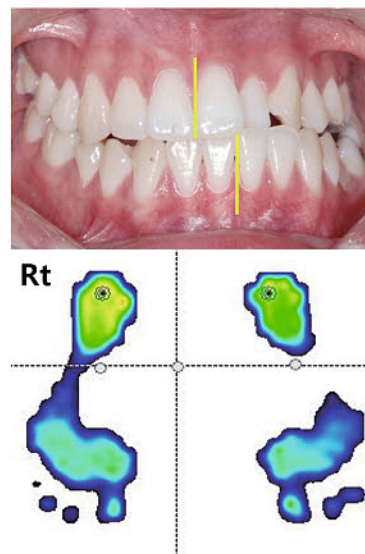


그림 15. 좌측으로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오른쪽 측압이 더 큰 것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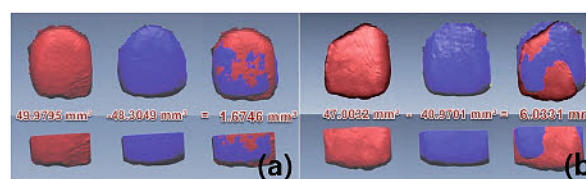


그림 16. (a) 상악전방견인술을 이용한 조기치료 증례. (b) 소구치 발치를 통한 절충교정 증례. 조기치료 증례에서 상악전치부 마모량이 더 적다.

결론, 왜 초기에 치료해야 하는가?

조기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수술이나 보상치료에 대한 대안 가능성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조기치료를 부가적 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장기 전치부 반대교합이 발생되면 과두의 위치가 전방 혹은 비대칭적인 변위가 흔히 나타납니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비대칭과 TMD의 예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그림13).
2. 이러한 악골관계의 이상은 저작근 근육의 부조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부조화의 개선은 성장능이 왕성한 성장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까지 이러한 부조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록 임상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저작근의 염증과 세포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그림14).
3. Ⅲ급 비대칭환자에서는 자세의 변형이 나타나며 이것은

정형외과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개연성이란 말로 표현하는 이유는 많은 임상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실의 연구에 의하면 하악골 비대칭환자의 반대측 발바닥의 압력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됩니다(그림15).

4. 교정치료시의 치아마모 역시 미래의 교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동료 교정의사에 게서 교정치료 중 치아마모 문제로 환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혹은 악습관 등이 원인이 되겠으나 반대교합을 개선할 때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조기교정을 하면 숫자적인 치료기간이 일반 교정에 비해 장기화 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 받곤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약 6-12개월의 악정형치료 후 보정이나 관찰기관을 포함해서 합산한 것이 지요. 일반교정을 해도 평생동안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게다가 이런 숫자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반대교합을 개선한 환자에서 전치부 마모도가 훨씬 적었다는 것이 저희 교실의 3D superimposition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그림16).

이상으로 7편의 연재를 통하여 성장기아동의 교정치료에 대한 대강의 윤곽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성장기아동의 교정치료는 의료인의 가장 큰 의무인 질병예방이라는 관점과, 치료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blue ocean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과 환자모두에게 自利利他的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난삽하고 거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Brodie AG. Facial patterns (a Theme on Variation). Angle Orthodontist, 1946; 16:75.
2. Clerck HD et al. Three-dimensional assessment of mandibular and glenoid fossa changes after bone-anchored Class III intermaxillary traction.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12;142:25-31.
3. 차봉근 등. 쉽게하는 성장기 아동의 교정치료. 명문출판사, 2015.
4. Cha BK et al. Maxillary protraction with miniplates providing skeletal anchorage in a growing Class III patient.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11;139:99-112.
5. Sugawara J, Mitani H. Facial growth of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and the effects, limitations, and long-term dentofacial adaptations to chin cup therapy. Semin Orthod. 1997;3:244-54

각주

- 1) Jarabak analysis. Anterior cranial base와 mandibular body length는 10세경 1:10이 정상이며, mandibular body length가 10% 이상 클 때는 강한 Ⅲ급 경향을 보인다. (Jarabak JR, Fizzell JA. Technique and treatment with light-wire edgewise appliances. 2nd ed. Saint Louis: Mosby, 1972)
- 2) Class III 부정교합 조기치료 시, AB plane과 mandibular plane 이 이루는 각도가 60°보다 작으면 불량한 예후를, 65°보다 크면 좋은 예후를 갖는다. (Son MH, Chang YI. Evaluation of various cephalometric measurements to predict the Prognosis of early Class III malocclusion treatment. Korea J Orthod. 2004;34:205-18)



차봉근 교수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교정학 석사
- 독일 베를린치과대학 치과교정학 박사 및 독일 악정형전문의 취득
- 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교수
- 현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 회장

Implant & BMP

를 이용한 GBR 특강

서울

2016. 7. 23.(토)
코웰메디 서울 세미나실

16:00~17:20 장명우 교수

누구나 할 수 있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17:40~19:00 이대희 원장

Controversial issues of crestal approach

- 1) Remaining bone height < 5mm
- 2) Bone graft vs No bone graft
- 3) Only BMP saturated with ACS

부산

2016. 7. 30.(토)
동아대학교 병원 강당

14:30~15:30 장명우 교수

누구나 할 수 있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15:45~16:45 김수홍 박사

골형성단백질을 이용한 치조골 재생과 연조직 재생

17:00~18:00 김철훈 교수

Sinus Lift Without Foreign Body Filling

연 자 소 개



장명우 교수

Cleveland 병원 치과과장
구강악안면 보철과 교수

이대희 박사

이대희 서울치과 의원



김수홍 박사

주식회사 코웰메디 대표이사



김철훈 교수

동아대학교병원 치과과장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참 가 신 청

코웰메디 서울본사 Tel:02)3453-5085

코웰메디 부산본사 Tel:051)314-2028

담당: 임은석 차장 010-5336-3258

담당: 권우창 차장 010-2920-8081

오 시 는 길

코웰메디 서울 세미나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원타워1차 14층 1404호

오 시 는 길

동아대학교 병원 강당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 병원



주 최

CWM
Cowellmedi Co., Ltd.

(주)코웰메디

“중부권 최고병원 입지 탄실하게”

김철환 단국대 15대 치과병원장 취임

김철환 단국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치협 학술이사)가 단국대 치과병원 제15대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 중부권 최고의 치과병원 병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병원장은 “의료진과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내부분위기 조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특화된 최고의 진료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



대학병원의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통한 환자와의 신뢰 및 유대감 강화 ▲의료진 및 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구강진료 등의 공공의료 및 구강보건사업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부터 단국치대 교수로 재직한 김 신임 병원장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조지아 주립치과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펼쳤으며, 단국대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장 및 진료부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자문위원,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통계청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010년 충청남도지사 표창 및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 kj45@dailydental.co.kr



대전지부·마닐라치과의사회 치의학 발전 협력·자매결연

대전지부(회장 이상훈)가 지난 6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치과의사회(회장 마리아 안젤라인 마뉴엘)와 치의학 분야의 지식 공유와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사진).

대전지부는 자매결연을 위해 지난해 11월 마닐라를 방문,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4일에 열린 마닐라 치과의사회의 ‘79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Session for the Administrative Year 2016-2017’에 참여해 자매결연 약정서에 사인을 했다.

이번 자매결연의 첫 학술교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승표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quantitative tooth wear parameters using digital technique’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우수한 치의학 연구실적 소개와, 치의학의 최신지견을 발표해 현지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이상훈 대전지부 회장은 “이번 마닐라치과의사회와의 자매결연은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상호 참여함으로써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학술 교류를 통하여 양 단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원광치대 재경동문 ‘그린 화합’

첫 골프대회 성료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재경동문(동문회장 이승룡·이하 원광재경동문회)들이 골프대회를 통해 교류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가졌다(사진).

2016년 제1회 원광재경동문회 골프대회가 지난 6월 25일 스카이 72 클래식 코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0팀 40명의 동문이 참가했으며, 정 찬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우승은 박용근 동문, 준우승은 유재민 동문, 룡기스트 권명호 동문, 니어리스트는 양희창 동문이 차지했다. 메달은 권혁준, 조옥환 동문이 가져갔다.

원광재경동문회는 올해 처음 개최한 골프대회가 동문들의 화합과 친선 도모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대회는 2017년 6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룡 원광재경동문회 회장은 “20년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선배후배간에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찬에도 모두 끝까지 자리를 해준 동문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해 재경동문 단합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몽골서 진료봉사·기자재 기증

원광치대병원, 원불교 100주년 기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병원장 권경환·이하 원광치대병원)이 원불교 개교 100주년과 원광학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몽골에서 해외봉사활동을 벌이고 돌아왔다.

원광치대병원은 의대병원, 한의대병원 등과 함께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병원에서 대규모 양한방 협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봉사기간 400여명의 현지 환자가 봉사현장을 찾아 치과, 외과, 내과, 비뇨기과, 한방의학과 등의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250여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와 치과 기자재를 기증하고 왔다.

원광대는 몽골 철도병원 및 몽골 제1병



원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치과의사와 의사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원광치대병원은 몽골 국립철도병원에 의료영상정보시스템과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접목한 U-Health Care Center를 개소해 원격으로 화상 진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몽골의 중증 안면 외상이나 기형 환자, 악안면영역의 종양 환자 등의 한국 방문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전수환기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천만원 기부

고수진 임상교정연수회 홈커밍데이

고수진 교수(서울을지병원 치과)가 운영하는 교정연수회가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지난 6월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고수진 임상교정연수회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고수진 교수가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KCVC)에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사진).

고수진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임상교정연수회의 연례 강연회 및 증례발표회를 맞아 참가 회원들의 등록금과 수익금에 추가 금액을 더해 이번 기부를 했다.

고수진 교수는 “재학시절 이기수, 정규림, 박영국 교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사회 환원으로 보답하고 싶었다”며 “임상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배우는 자리에서 사회에 따뜻한 마



음을 나누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안타까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KCVC 이사장은 “치과의사들이 KCVC에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범죄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모두 지원이 되므로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구호 문의: 1577-1295, www.kevc.or.kr) 전수환 기자

“치과의사 해외진출 팔 건졌다”

치협 법제위원회 위원 위촉 본격 활동

Interview 치의 출신 김용범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기관 해외 진출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을 살려 치과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최근 치협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를 지난 6월 27일 메가젠임플란트 강남사에서 만났다. 현재 메가젠임플란트에서 의료기관 해외 진출 관련 업무를 맡으며 우리나라 치과 의료의 해외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를 들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해외로 “활동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세안’(ASEAN) 지역을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진출하기 적절한 곳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진출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영어를 잘 한다. 또 체제가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치과의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 변호사의 생각은 이렇다.

“먼저 치과의사 개인은 목표 국가를 정하고 언어를 준비해야 한다. 또 국가별 사정에 맞는 전략을 적절히 세워야 한다. 하

지만 해외 진출은 치과의사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치협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전략 국가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이에 그는 앞으로 치협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치협이 추진하는 치과의사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후배 치과의사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후배들에게 치과 개원 외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니 무조건 개원을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게 즐겁고 보람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게 맞지만, 재미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길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정연태기자



장애인 보호자 구강교육사업 신청하세요

스마일재단,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 선정

스마일재단(이사장 나성식)이 ‘장애인 보호자와 함께하는 구강건강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6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스마일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호자 구강관리교육과 구강교육자료 및 구강위생용품지원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치과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안내해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호자 구강관리교육’은 장애인 구강건강의 중요성, 장애특성에 따른 구강예방법 등의 이론교육과 구강상태 점검,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안내 등의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구강교육자료 및 구강위생용품



스마일재단
The Smile Charity Foundation

지원’은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보호자가 구강교육자료를 활용해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터득하고,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구강위생용품 활용방법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구강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 아동은 구강교육영상(DVD) 자료, 시각장애인은 점자교육자료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월 13일까지다.

사업 신청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 ‘지원사업 알림’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김민경 주임 02-757-2835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2016년 한국 포괄치과연구회(K-IDT) 학술집담회

“Ortho & Resin”

2016년 7월 9일 (토) 오후 5시~9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강의실

교정과 레진의 협진을 통한 포괄적 치료

김일영 원장

서울치대 졸업 (1985)
크리스탈치과의원 원장
크리스탈 아카데미 (CASE) 디렉터
2013년 사인덴탈-덴트포트 학술상



치아가 심미와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Form & Position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하며 최소 침습적인 관점에서 심미와 기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치아교정과 심미수복치료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두 분야 상호간에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치아 삭제 혹은 발치라는 침습적인 치료가 남용되거나, 심미와 기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교정치료와 레진 등 타 분야와의 협진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여러 포괄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공적 레진 수복을 위한 최선의 궁합은?

김진영 교수

뉴질랜드 오타고치대 졸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존과 수련 및 박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분원 치과보존과 교수
2015년 대한치과보존학회 신인학술상



심미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 증가와 개선된 복합레진 재료 및 술식으로 레진 수복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치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임상적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판 중인 다양한 접착제와 복합레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복합레진과 레진 본딩 시스템의 종류, 장단점 및 적용방법을 알아보고 임상 케이스에 따라 복합레진을 이용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제조해보고자 합니다.

Main topics

1. 성공적 레진 수복치료를 위한 최신 지견
2. 다양한 복합레진과 레진 본딩 시스템
3. 임상 증례에 따른 복합레진 적용
4. 교정과 심미수복치료의 포괄적 협진치료를 적용한 다양한 임상증례 소개 및 clinical tips

Additional topics

1. 실패없는 레진 본딩/ 인접면 및 치경부 수복/ 도재 및 금속관에 대한 레진 수복
2. 레진 수복후 지각과민증의 예방과 대책
3. 레진을 이용한 교합면 수복시 교합접촉 형성방법 및 주의사항
4. 교정후 peg lateralis의 수복
5. 인접면 레진 contour 형성과 food impaction control
6. black triangle의 수복시 주의사항

사전등록마감 :

2016년 7월 1일 (금) / 주차권, 샌드위치, 음료 제공

사전등록: K-IDT 정회원 (3만원), 일반 (6만원)

(현장등록: 2만원 추가)

외환은행 630-010057-560 한국 포괄치과연구회

: 치과의사 실명으로 입금후

010-3203-8757 로 문자부탁드립니다

K-IDT가입 및 등록문의:

www.kidt.co.kr 홈페이지 참조

한국 포괄치과연구회 (K-IDT) 회장 김정대

Korean Interdisciplinary Dentofacial Therapy

“요즈음, 아이들 치열은 어떠십니까?”

성장기의 근기능적 이상은 수면호흡장애(SDB)와 코골이, 가쁜 숨결과 수면방해호흡증(OSA)과 관련이 있으며, 치아, 턱, 그리고 안모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Breathing, Tongue, Swallowing과 Airway의 해부학적 고찰과 근기능적 관점에서의 부정교합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국내 MRC(Myofunctional Research Center) 멤버들의 국내 적용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등록하신 모든 분께 치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료세트를 제공합니다.

일 시: **7월 17일(일)** 11:00 ~ 16:00

장 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강의주제

1. 근기능 이상을 동반한 부정교합 임상 사례 및 진행 상황
2. 근기능적 관점에서 부정교합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3. 아이들과 보호자에 맞춘 눈높이 상담하기
4.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근기능 훈련치료 소개하기
5. Breathing, Tongue, Swallowing, Lips & Cheeks와 Airway등의 해부학적 고찰
6. 국내 MRC member 적용 사례
7. 치과에서 근기능 진료를 시작한 후 지속적인 발전 방향

강의연자

교수 김희진 (연세대학교 해부학)
교수 안소연 (원광대학교 소아치과)
원장 홍기상 (서울어린이치과)
원장 김상환 (서울B&B치과(MRC Member))
원장 한정재 (피터팬치과(MRC Member))
원장 안슬민 (맘애든치과(MRC Member))

일란성 쌍둥이 얼굴을 찾아주는 진료



- ✓ 어린이 아이들도 치료 혜택
- ✓ 확대되는 환자 진료
- ✓ 효율적인 역할 증대
- ✓ 늘어나는 재정 효과

- * **등록비:** 220,000원 (부가세포함), 스텝 1인 무료
- * **기업은행:** 420-071170-04-017 (주)엠알코리아
- * **문의:** 02-3281-0390, 팀장 백진우: 010-3039-8407
- * **후원:** 설아코퍼레이션
- *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등록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에게 가지런한 치아와
예쁜 얼굴성장을

Myofunctional Research Korea Co. Ltd.

병원경영의 파트너

Anybeam™ Top EN plus



신규팁 3종 발매



메스팁
메스처럼 빠르고
깔끔한 연조직 절개 가능
▲ 신속한 연조직 절개

페리오 현 팁
직각방사(조사방향을
360도 자유조절)
▲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교정팁
하방 45도 조사로
잇몸내 경조직 삭제 및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가능
▲ 매복과잉치 발치 외



신품 3년 무상 A/S - 본사 책임수리 - 저렴한 소모품 비용
레이저는 A/S가 더 중요합니다. 평생 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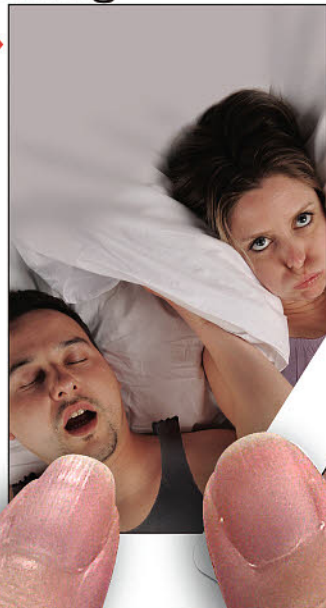
레이저 조사기 검용으로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레이저 법정비급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참조



Sn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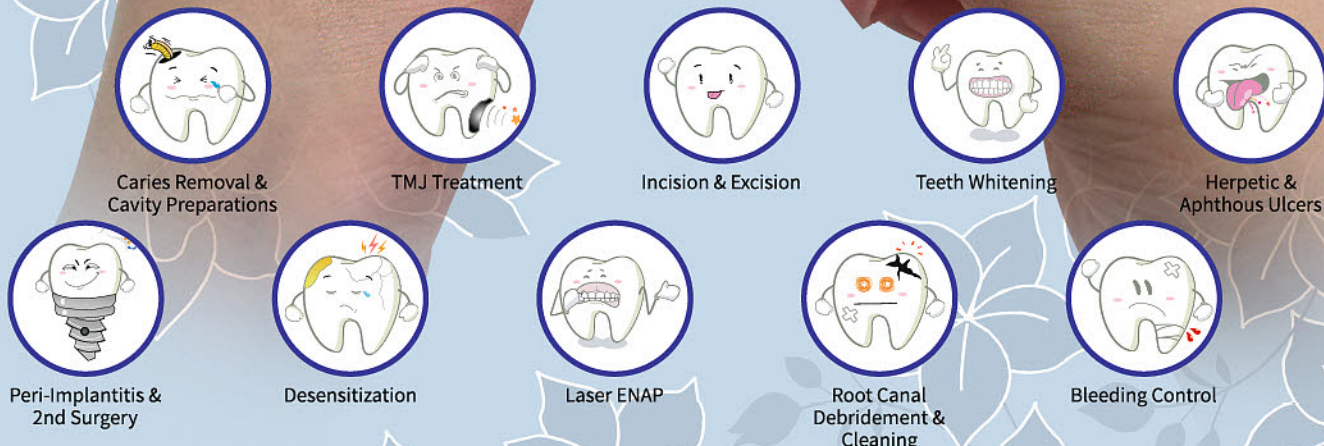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복합자극

분류번호	수가코드
차38다	U2383



**기존 증례들은 물론, 더욱 다양한 활용범위로
환자서비스와 병원경영에 도움을 드립니다.**



당사는 삼성전자(주) 의료기기사업팀의 분사기업으로서
전세계 50여개국으로 첨단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085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경인 디지털밸리 II 516~518호
■ 문의: 080-310-0300(수신자부담), 02-2113-1390(代)
■ 홈페이지: anybeam.com ■ 유튜브: youtube.com/bnbsystems



이것이 오랄-비 전동칫솔 혁신 기술

IADR 기간 중 기자간담회...최신 임상·개발 역량 발표

세계적 전동칫솔 브랜드 오랄-비(Oral-B)가 자사 브랜드의 압도적 '파워'를 공유했다.

오랄-비는 제94회 국제치과연구학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최신 임상연구 결과 및 개발 역량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오랄-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3차원 진동회전 방식의 오랄-비 전동칫솔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양치습관을 관리하는 경우 일반 수동칫솔에 비해 더

효과적인 치태 제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강관리가 가능하고 전동칫솔의 권장 양치시간인 2분을 지키기 위한 동기 부여로 구강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P&G 측은 닥스 오캅포추아 아시아 구강케어 R&D 총괄 책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R&D 센터 소개, 전동칫솔 기술 시연 등의



세션을 진행했다.

본지는 P&G 글로벌 구강케어 R&D에

서 근무하고 있는 켄 장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랄-비 R&D의 핵심컨셉, 그리고 치과계와의 협업 과정을 소개한다. 켄 장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구강생물학박사 학위를 받았으

며, 캘리포니아 치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치과의사가 개발 참여 효능·안전성 입증 자신”

Interview 켄 장 박사

■ P&G가 추구하는 R&D의 메인 컨셉을 소개한다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중심적 솔루션'이다.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전동칫솔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구강케어 솔루션들을 오랄-비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 환자들이 집으로 갔을 때 그 못지않은 케어가 집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동칫솔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의구심이

있다면 치과의사들이 일단 직접 사용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 세계적인 학회에서의 발표나 논문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달라. 지난 60여년 동안 발표된 50여편의 논문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전식 전동칫솔이 일반 칫솔에 비해 효과가 훨씬 좋다는 점이다. (직접 제품을 시연하며) 1분에 5만회의 회전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자동압력센서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대한 경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 치과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P&G는 다차원적으로 전문가인 치과의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첫째 저처럼 사내의 치과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기술센터가 C&E(connect & Develop)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셋째,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선정된 치과의사들에게 제품을 공급, 직접 사용한 경험이나 환자들의 피드백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인 오피스 프랙티스 리서치(In Office Practice Research)'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개발 다음 과정에서 사용법이나 피드백 등 전체 과정을

총망라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치과의사들과 협업하고 있다.

■ 치과의사들이 환자에게 전동칫솔을 추천해야 할 이유를 꼽는다면?

우선은 치과의사들이 전동칫솔의 장점을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이 사용해서 설득이 돼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추천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도 치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동칫솔에 대한 권유를 통해 원활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동칫솔 하나로 칫솔모를 바꿔서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치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진 입장에서 임플란트를 비롯한 자신의 술식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윤선영 기자

120년 전통의 명품 치과기구 **SCHWERT INSTRUMENTS**

P-LUX
MODERN THERAPY - MODERN INSTRUMENTS

SCHWERT
SWORD · ESPADA
EPEE · SPADA

문의전화 02-757-5575 **덴탈 이디엘**

"치근을 파절시키지 않고도 쉽게 발치가 가능합니다."

※ RED Color 제품번호 : 인가상품

617-20 (Periotome) : 특수강재질. 갈부러지지 않습니다.

617-01

617-02

617-03

617-04

617-05

617-06

617-07

617-08

617-09

617-10

617-11

617-12

617-13

617-14

617-15

산학협력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메가젠임플란트, 김천대학교와 MOU 체결

(주)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가 김천대학교(총장 강성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한)와 지난 6월 27일 김천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성공적인 취업연계를 위한 고용예약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결됐다.

메가젠 임플란트는 김천대 치과공과 내 맞춤형 취업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임플란트 시장에서 타기업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천대는 메가젠임플란트에 필요한 임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왼쪽), 강성애 김천대학교 총장(중간), 박광범(왼쪽)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관계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플란트 세일즈 엔지니어와 품질관리 인력 등 핵심직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맞춤형 취업 매칭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내 전공선택의 별도교육과목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박광범 대표는 "이번 산학협약을 통한 핵심직무 전문인력 고용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미국 Lares 명품 핸드피스 최대 45% 할인가격 이벤트

경제치과기계상사 유통

경제치과기계상사(대표 이경제)가 미국 Lares사의 핸드피스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확 낮춘다는 소식에 Lares 브랜드를 알고 있는 개원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ares사의 핸드피스는 완벽한 그립감과 월등한 파위의 대명사로, 미국 유학과 임상가들 중심으로 국내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제품이다.

미국의 비영리 치과기자재 평가기관인 'CRA' 보고서에 따르면 Lares 핸드피스를 포함한 유명 핸드피스 브랜드 4개를 임상 실험한 결과 Lares 핸드피스가 20.8watts로, 여타 브랜드의 핸드피스 제품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구성 테스트 결과 증기 가압열균 시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카트리지의 수명이 길다는 점 역시 입증했다.

또 3중 물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그립감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특수코팅으로 전혀 부식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핸드피스 결합 부분이 이른바 카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품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회사 측은 Lares 핸드피스를 모델별로 36%에서 최대 45%까지 할인한 가격에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200대 한정으로, 이벤트 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

이경제 경제치과기계상사 대표는 "Lares 핸드피스의 국내 유통을 새로 맞



게 되면서 기존에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온 유저들을 위해 특별한 가격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Lares 핸드피스 판매 뿐 아니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카트리지를 보유한 가운데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 스트레이트, 앵글, 임플란트 앵글 등을 수리하고 있는 만큼 핸드피스 구입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품 문의 및 수리 02-755-3354(경제치과기계상사).

대륙 혼돈 'TLC·EZ-Sep·RCBP' 삼총사

EBI임플란트 'Sino-Dental' 서 솔루션 시리즈 인기

EBI임플란트(대표 김미숙)가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ino-Dental 2016'에 참가해 최근 출시한 3종류 신제품 솔루션 시리즈를 전시해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극찬을 받았다.

첫 번째 'TLC(Translingual curette)'는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연조직 이식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건강하고 충분한 혈액공급을 받는 치간유두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으로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EBI임플란트가 지난 6월 9~12일 열린 중국 'Sino-Dental 2016'에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EZ-Sep(ABR)'는 임플란트 중앙에 정확하게 수직적인 힘을 가해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에 아무런 손상을 끼치지 않고 보철물을 임플란트에서 분리할 수 있게 돕는 제품으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RCBP(Ridge Contouring Bur Plus)'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 제품은 선단부에 날 방향이 반대로 되어있어 기존 RCB와 같이 인접 연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조골의 외형을 형성시킬 수 있다. RCBP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선단부의 날을 이용해 여러 각도로 치조골을 다듬을 수 있다.

EBI임플란트 관계자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술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수술시간 단축과 편리성을 증대한 수술도구들에 관심이 많았고 신규 딜러들과의 미팅이 끊이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회원 고충처리 신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 치과의사 회원전용 ▶ 각 위원회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 접수/처리란에 신청해 주시면 신속히 연락/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A

대한치과의사협회
Korean Dental Association

협회 사무처 Tel.02-2024-9100
치의신보 Tel.02-2024-9200





선명한 영상·디자인 ‘맘에 쏙’

모든 사이즈 커버·시뮬레이션 진단 가능

NEW >> 오스템 Dental CT ‘XI’

Dental CT ‘XI’에 대한 반응이 정식 출시 전부터 뜨겁다.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가 지난 4월 SDEX에서 첫 선을 보인 ‘XI’은 Dental CT의 Gold Standard로 알려진 Varian 센서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해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또한 금속물 제거 기능을 탑재해 진단을 방해하는 보철물 등을 제거하고 노이즈 없이 깨끗한 영상을 구현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오스템 관계자는 “‘XI’은 무엇보다 Multi-PoV를 채택해 개원의들이 가장 선호하는 8°~16°10 사이즈의 영상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15°와 같은 대형 사이즈 구현도 가능해 원하는 사이즈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편리한 진단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오스템에서 자체 개발한 ‘OneClinic3D 프로그램’을 탑재해 CT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진단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특히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 부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식립 프로그램’을 탑재해 임플란트 식립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려한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치과 인테리어를 고려해 장비 디자인을 매우 세련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환자와 치과 스태프 모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SDEX에서 XI을 직접 본 개원의들이 선명한 영상과 우수한 디자인에 감탄, 즉석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후문.

오스템 관계자는 “XI을 필두로 영상 장비의 기본 세팅 품목인 스탠다드 엑스레이, 포터블 엑스레이, 구강카메라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금번 CT 시장 진출로 임플란트부터 재료, 영상 장비, 소프트웨어, 인테리어까지 치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Total Solution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XI’은 프리 론칭을 거쳐 오는 하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문의 070-7016-4883.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 세라믹 브라켓 세계시장 ‘도전장’

NEW >> 바이오세텍 ‘C Line™’

기존 세라믹 브라켓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세라믹 브라켓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주)바이오세텍(대표 윤성희)는 최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3년여의 공동 연구개발로 개발한 세라믹 브라켓 C Line™(이하 씨라인)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바이오세텍 측이 꼽는 씨라인의 장점은 일단 단일 결정질 수준의 강도와 투광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강도 및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Sinter- HIP(Hot Isostatic Pressing)조건을 확보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Bonding Strength를 향상시켰고, 하악 전치에서의 치아에 전달되는 Debonding Stress를 최소화시켰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Nano Particle Polishing & Coating 공법을 적용해 메탈 슬롯과 동등한 수준으로 프릭션을



감소시켰으며, Base Flange Design & Vertical Scribe Line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포지셔닝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바이오세텍 측은 “3년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치열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Bio-Tack™을 출시하였으며, 자가결착 세라믹 브라켓 S Line™과 사전 멸균 코팅된 미니 임플란트 Bio-Tack Plus™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교정학회를 비롯해 2016 DenTech China, 2017 AEEDC Dubia 등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시장의 국산화는 물론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품문의 : 02-704-2876

신개념 저주파레이저 개원가 ‘엄지척’

시술 후 빠른 회복 등 다양한 진료에 효능 탁월

NEW >> 지엠텍 ‘아-레이저’

새로운 개념과 컨셉으로 출시된 저주파레이저인 ‘아-레이저’가 개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지엠텍이 최근 출시한 아-레이저가 치과의 전반적 치료에 다양하게 적용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저주파레이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 시킨 아-레이저는 가격과 효능, 효과 면에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효능 및 효과에 있어 치아교정 시 치주인대 통증 완화를 비롯해 상아질 과민증 치료, 구강 내 충치 및 미생물 파괴 효과와 악관절 통증, 구내염, 치주염, 치은염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발치 후 지혈, 크라운 고정 후 통증, 수술 후 턱 골염 등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후 드레싱 시 효과가 높아 임플란트 수술 후 내원하는 환자에게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빠른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레이저는 치과 치료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장점으로는 조직 응고에 도움을 줘 치료 중 출혈을 최소화시키며 심한 치주포켓 및 치아뿌리 신경 치료 시 감염률을 낮추고 조직 상처의 치



기존 방식과 다른 의사 및 스태프 없이 진료 받는 환자 모습

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증완화, 치아회복 강화, 구강점막염 치료 및 침샘 염증 매개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아-레이저는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 카트 방식이 아닌 유니트체어 라이트봉에 장착해 환자의 환부에 물려만 줌으로써 무인진료가 가능해 대기환자의 감소 및 환자 치료 전후 체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장시간 대기에 따른 환자의 불만 해소와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치과 내에서의 공간적, 시간적 활용도를 높여 내원 환자의 병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레이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mtc2013.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554-1266

모든 치과재료 효율적 반응 무선광중합기 대표주자 주목

NEW >> 메데스 ‘쿨라이트123’

국산 치과용 무선광중합기 쿨라이트를 개발해 국내에 무선광중합기 시장을 선도해온 메데스가 두 가지 광원을 동시에 출력해 모든 치과재료를 빠르게 반응시킬 수 있는 쿨라이트123를 출시했다.

쿨라이트123는 광원에서 400nm 보라색 파장과 460nm 청색파장을 출력하도록 설계돼 두 가지 파장을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에 모든 치과용 재료를 효율적으로 반응시킬 수 있으며, 빛의 강도가 약 1,500mW/cm²에 달해 재료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중합시킬 수 있다.

또한 링스위치를 채용한 독특한 설계로 사용의 편의성이 높고 가벼우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 치과용 광중합기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쿨라이트123의 자매제품으로 광학장치를 통해 육안으로 플라그를 관찰할 수 있는 덴티글라스 고글제품도 추가돼 덴티글라스 클립, 안경 타입에 이어 고글타입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메데스의 덴티글라스는 특수한 파장을 조사해 발생하는 플라그의 형광현상을 이용해 염색할 필요 없이 플라그가 형성된 부위를 즉시 붉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덴티글라스 광학시스템은 휴대가 간편한 미니라이트와 한 조를 이뤄 포켓에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고글형태도

지원돼 자신에게 편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아의 크랙이나 치석, 치태, 보철물 또는 레진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스케일링이나 환자상담시 활용도가 높아 치위생사의 호응도가 높은 ‘치과 청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02-853-3370



2016 보스톤대학교 임플란트 심포지엄

BU Henry M. Goldman School of Dental Medicine

미국 최대의 대학도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보스톤대학교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최고의 강의와 최신 임플란트 지견과
술식을 알 수 있는 잊지 못할 자리가 될 것 입니다

-미국현지코스 수료 후 미국 보스톤대학에서
직접 발급된 **Certificate** 가 수여됩니다



연수회 개요	세 부 내 용
일 정	출발/도착 : 2016년 9월 13일(화) ~ 18일(일) [5박 6일]
장 소	미국 보스톤 대학교
모집인원	선착순 10명(등록기준) / 모집마감: 7월 29일(금)까지

등록문의

홈페이지 www.bostonden.or.kr
사무국 02.2038.2879



네오바이오텍 패키지 담당자
윤한성 지사장 010.2206.6001



‘스포츠 발전 주춧돌 스포츠치의학’ 해부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학술대회(7월 10일)

외상·생활체육 등 3개 세션 진행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이성복)가 오는 7월 10일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스포츠 발전의 주춧돌! 스포츠치의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 치의학, 스포츠 외상, 생활체육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스포츠 치의학’을 주제로한 오전 세션

에는 최대균 전 경희치대 교수가 ‘스포츠 치의학의 역사’, 진상배 원장이 ‘스포츠 치의학과 건강보험’, 이성복 교수가 ‘과격한 접촉성 운동과 마우스가드의 실제’를 주제로 2015년 첼리아빈스크 세계태권도 학술대회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김수관 조선치대 교수가 ‘스포츠 치의학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오전 강연이 마무리 된다.

오후에는 ‘스포츠 외상’을 주제로한



이성복 회장



권금록 대회장

세션에 이정우 교수가 ‘스포츠 안전손상의 종류와 대처’, 마연주 교수가 ‘소아 청소년기 스포츠 손상의 예방과 관리’, 김진우 교수가 ‘외상성 턱관절 질환’, 이지호 교수가 ‘스포츠 경기중 발생한 안면부 골절의 처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세션에서는 이의석 고대 교수가 ‘생활체육에서 안면부 부상방지를 위한 노력’, 전명섭 원장이 ‘치과치료시 필요한 도핑 방지 상식’을 주제로한 강연과 회원들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협 보수교육점수 4점이 인정되며, 스포츠 팀닥터 자격증 획득을 위한 포인트 10점이 부여된다.

또한 스포츠 팀닥터 획득시 선수촌과 연계해 운동선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스포츠 팀 닥터에 대한 소식지도 제공된다.

문의 : 02-440-7519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기본에 충실” 회원들 고민 치료과정 해결

한국레벨엔지니어링교정연구회 1-Day 워크숍

한국레벨엔지니어링교정연구회(회장 고범연)가 지난 6월 16일 신원덴탈 세미나실에서 1-Day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두 명의 연자가 강연을 했다.

첫 강의를 진행한 한병주 원장(한병주 치과의원)은 ‘상악구 치의 후방·후상방 이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라성호 원장(서울미소 치과의원)이 ‘임상사진 촬영의 핵심요약’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고범연 회장은 “최근에 고안된 여러 부가 장치의 사용은 교정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명확한 메커니즘의 기초 하에 부가적인 임시 고정원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얻기 힘들었던 치아의 움직임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최근의 교정 경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레벨엔지니어링교정연구회가 지난 6월 16일 신원덴탈 세미나실에서 1-Day 워크숍을 열었다.

고 회장은 또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연자를 초빙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보다 유기적인 연구회가 되고자 노력하겠다”며 “연수회 이외에도 분기별 열리는 워크숍과 매달 열리는 증례 토론회는 회원들이 고민하는 진단과 치료과정의 평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스텝 역량 강화도 스마트하게~

로덴치과그룹 ‘스텝직무교육’ 실시

로덴치과그룹이 회원치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로덴 측은 지난 6월 25일 서울강남에 위치한 글로벌메디스 세미나실에서 회원치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스텝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직원들의 담당업무나 직급에 맞는 특정 주제를 선정해 실시하는 해당 교육은 올해 두 번째로, 점점 치과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환경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온라인홍보를 위해 ‘스마트하게 우리치과 알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온라인 홍보에 대한 이번 교육은 현재 로덴치과그룹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들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치과에서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방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SNS, 메신저 등으로 다양하게 연결되는 홍보방안을 통해



콘텐츠 하나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런 온라인 홍보는 단순히 신환의 유입뿐만 아니라 구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까지 함께 고려돼 회원치과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로덴치과그룹의 통합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부분에도 눈길이 쏠렸다.

이번 교육에서 회원치과의 개별적 온라인홍보는 치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됐다. 소규모치과에 적합한 방법, 전담직원이 있는 중형치과에서의 방법 등 실제 사례와 그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윤선영 기자

이화교정 미니심포지엄 ‘후끈’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대학원장 전윤식) ‘제17회 이화교정 미니심포지엄’이 지난 6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신촌캠퍼스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이날 심포지엄에는 150여명이 참가해 밤늦은 시간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Lip Protrusion의 다양한 치료법’을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엄은 전윤식 이대



임치원장의 사회로 손명호 원장(아너스 치과의원)이 ‘ASO 후의 안모변화 어떻게

게 다룬다’, 김성식 교수(부산대)가 ‘전치부 후방견인시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정주영 교수(연세대)가 ‘연조직과 미소심미를 고려한 전치부 후방 이동량의 설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은정 기자

3DKP

#6 & #7 정말 후방이동?



3DKP is a Good Present

For Orthodontist



절대고정원(Absolute Anchorage)을 구축하여 미니스크류(Mini Screw)의 한계를 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교정치료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주)쓰리디케이피

139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33(안양2동)
TEL: 031-448-2598 / FAX: 031-448-0221
Mobile: 010-3720-2599
E-mail: 3dkp@korea.com

비심미적 수복물 원인·해법 관심 쏠려

대한심미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임영준)가 지난 6월 26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왜 내가 치료한 수복물 주변만 비심미적일까?’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수복물 치료의 심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상 노하우를 제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가 열리기 전에는 인정의 교육원 강의가 진행돼 인정의교육원과 학술대회가 연계돼 행사가 진행됐다. 학술대회 후에는 인정의교육원 1기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인정의교육원을 이수한 모든 연수생에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수료증과 메달이 발급됐다. 인정의교육원 연수생은 10월 8일 실시될 인정의고시를 통해 인정의 펠로우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임영준 회장은 “인정의교육원 1기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며 “이번 연수회는 훌륭한 연자분들의 열정적인 강의 뿐 아니라 실습이 더해져 수강생들의 집중도가 뛰어났다. 기존 연수회와의 가장 큰 차이는 훌륭한 실습 교육에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인정의교육원을 수료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 학회 활동을 함께 해 나갈 동료로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인정의교육원을 통해 학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교육원을 수료한 선생님들도 득을 보았지만, 연자로 참여한 학회 이사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학회 이름으로 단

결되고, 마음을 합치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해 교육원 때문에 행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정의교육원은 당초 30명 정원으로 계획됐지만 모집 일주일 만에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으며, 추가 등록을 원하는 지원자들의 열띤 요구를 받아들여 40명으로 1기 과정을 시작한 바 있다. 2기 과정은 내년 3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좋은 심미적 예후란?

이날 학술대회는 각 분야별 심미보철의 대가들이 많은 임상가들이 궁금해 하던 비심미적 수복물의 원인·해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규 조직위원장은 “평상시 모시기 힘든 심미보철의 대가들을 초청해 장기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심미적인 치과 진료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그 동안 쉽게 다뤄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강연을 통해 임상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문섭 학술이사는 “추후 12월 18일 코엑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일방적인 강의 전달 방식을 탈피해 연자와 청중 간에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강의를 도입해 임상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4명의 연자가 초청돼 열



강을 펼쳤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이승규 원장(4월 31일 치과의원)은 ‘뾰뾰 안 뾰 뾰, 감쪽같은 pontic design을 재고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전치부 보철의 pontic design은 marginal gingiva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역설하며, 발치 즉시 임시치아를 이용한 ovate pontic 제작 방법과 치유된 치조제에서 사용되는 pressed pontic의 디자인 노하우를 제시했다.

이어 조경안 원장(오케이라인 치과의원)은 ‘The gingival is red around my crown’이라는 주제로 수복물 주변

의 염증과 발적의 원인 및 해법을 제시했다.

또 이정삼 원장(웃는하루 치과의원)은 ‘임플란트는 원래 black triangle이 생기는 걸까?’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전치부의 소실된 papillae의 회복을 위해 치은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CT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정찬권 원장(에이블 치과의원)은 ‘전치부 수복물 주변의 검은 그림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대치 변색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IADR 서울대회서 General session 운영

BioMTA 세계 치의학 무대 성큼

본부 엄격 심사 거쳐 연제 연자 결정

BioMTA(대표이사 유준상)가 전 세계 치의학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린 IADR 서울 학술대회 기간 ‘Biomaterialization & Regeneration’을 주제로 한 General session을 통해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사진).

General session에서는 유준상 BioMTA사 대표, 제라팻 교수(태국마히돌대학교 보존과), Arote 교수(서울치대 분자유전학과), 안소연 교수(원광치대 소아치과)가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또 제라팻 교수가 REP tech과 RetroMTA의 한스온, 유준상 대표가 근관 내 이식술 한스온을 선보였다.

이날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강



연 후에는 열띤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BioMTA 관계자는 “이번 Biomaterialization & Regeneration session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벤처기업부설 연구소인 BioMTA의 신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IADR의 General session은 IADR 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연제와 연자들로 구성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우울증·불안장애 치과환자 효과적 소통·대처법은?

KSO 7월 학술집담회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 7월 학술집담회가 오는 8일 벨레스스 서울호텔 ((구) 르네상스 서울호텔) 4층 루비룸에서 열린다.

이날 집담회에는 백종우 교수(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지혁 교수(서울대 성형외과)가 연자로 나서 각각 ‘임상 현장에서 정신과 질환의 발견과 대처’, ‘악골의 위치가 비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과 악교정수술 전후 비순각을 포함한 코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백 교수는 “치과치료 특히 교정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적 관계와 순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 현장에서 정신과 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강연을 통해 대표적인 현대인의 질환인 우울증과 불안장애, 인격장애 및 분노조절장애가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백종우 교수



정지혁 교수

양상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대처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악교정 수술은 비순각을 포함한 비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만큼 강연을 통해 악골위치의 변화에 따른 비부의 변화와 비부 주변구조와의 조화의 변화가 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정의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디오나비’ 전문가 육성 나선다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 본격 가동

하반기 전국 30여 차례 진행
실습·시연 참가 기회 제공도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디오(대표 김진백)가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 전문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디오는 이를 위해 ‘디지털 덴티스트리’로서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DIO Digital Academy/DDA))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DDA는 국내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습형 핸즈온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치과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실제 임상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커리큘럼

내용	시간
DIOnavi, 시스템 개요(개념 정립) DIOnavi, kit 활용(사용방법)	1시간
핸즈온 Blocks(개념 정립, 골밀도 분석)	30분
전치부 및 골폭이 좋은 케이스	30분
무치악 케이스	1시간
Sinus 케이스	2시간
질의응답	15분
수술 영상	1시간
설문지 작성	15분

이미 지난 6월 11일 부산에서 최병호 교수(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병원)를 비롯한 20여 명의 아카데미 연자들이 모여 출발을 알리는 미팅을 가졌다(사진).

이어 6월 18일 부산과 25일 충북 청주에서 각각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스타트해 올 하반기 전국에 걸쳐 30여 차례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주)디오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호주, 멕시코 등 주로 해외 유저를 중심으로 디



오 디지털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 국내 치과계가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화두를 전환하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로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를 확대하게 됐다”고 프로그램 운영 배경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 “치과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임상케이스를 채택해 DIOnavi, (Surgical Guide) 이론, 영상교육, DIOnavi를 이용한 핸즈온 및 Live Surgery(실제 시연)를 참관할 수 있어 프로그램을 수료만 하더라도 치과 진료 전체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디오는 DDA를 통해 치과 유저 및 스텝들의 디오나비 숙련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내 치과 시장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오는 오는 7월 9일 서울과 광주, 7월 16일 경남권에서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세미나 홈페이지(dds.dio.co.kr) 및 각 지역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성인교정치료 태동기부터 현재 교정학 부분별로 조명

전남치대 교정과 동문회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치과교정학교실과 전남대학교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회장 이계형)가 지난달 6월 25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The 25-year Journey in Adult Orthodontics at CNU”를 주제로 열린 이번 동문 학술대회는 1부 만찬과 2부 학술대회 3부 정기총회 순으로 70여명의 동문회원들이 참석,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김은정 학술이사(클리브랜드 선이교원치과의원)가 ‘Never ending story-The 25-year Journey in Adult Orthodontics at CNU’라는 연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남치대 치과교정학교실 황현식 교수 연구팀이 추구해왔던 교

정치료와 교합, 치주교정, 보철교정, 노인교정, 수술교정에 대한 각각의 연구성과를 살피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강연 제목인 Never ending story처럼 앞으로 끊임 없는 노력과 연구로 더욱 발전된 전남대학교 교정학교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강의를 마쳐 여러 동문들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오희수 교수(UOP 교정과)가 ‘Surgery-first approach in correction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with mandibular asymmetry’라는 연제로 최근 있었던 전남대 치과교정과 교실과 UOP 교정과 간의 surgery-first approach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Angle



Orthodontics에 채택된 임상증례를 소개하며 이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전남대 치과교정과만의 독창적인 치료 프로토콜의 우수성을 확인시켜 줬다.

마지막 연자로 보이드 교수(UOP 교정과)가 ‘Cutting-Edge Orthodontics for Class III Adults Malocclusion’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보이드 교수는 intra-oral scanner와 3D cone-beam image를 이용해 더욱 간편하고 정확하게 Invisalign을 치료

연했다.

황현식 전남대학교 치과교정학교실 주임교수는 “성인교정치료의 태동기부터 오늘날까지 교정학을 각 부분별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나아가 교정학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는 유익한 행사였다. 전남대학교 치과 교정학교실 뿐만 아니라 동문회원들도 함께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ky45@dailydental.co.kr

회원들 연제·증례발표 ‘열띤 토론의 장’

한턱관절·교정연구회 학술대회

한턱관절·교정연구회(회장 한만형)가 지난 6월 25~26일 양일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단합대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두 번째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오전 9명, 오후 5명 등 총 14명의 회원들이 연제와 증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열띤 학문 교류의 장이 됐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이재광 원장은 ‘실

폐한 임플란트의 성공적 재건술식’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어 홍종대 원장은 ‘턱관절과 전신증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임영일 원장이 ‘엔도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성환 원장이 ‘악간관계 조절을 위한 정량적 레진축성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 임상증례 발표에서는 김희광, 오재권, 박진



한턱관절·교정연구회가 지난 6월 25~26일 양일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단합대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회, 한서우, 성소영, 이정윤, 최세원 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강연에서는 김태준 원장이 ‘RPE

의 이론적 배경과 임상’을 주제로, 권혁용 원장이 ‘PDO Thread를 이용한 Midface Lifting’을 주제로 강의했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연자로 한만형 회장이 나서 ‘악궁확장의 의의’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들간 열린 행사에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연구회가 추구하는 학문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했다.

안정미 기자

“이젠 세계인의 임플란트 학술 축제”

『Osstem World Meeting 2016 ROME』성황

32개국 1000여명 치과의사 참가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가 주최하는 세계적 임플란트 학술축제 브랜드인 ‘오스템 월드 미팅’이 최근 로마에서 성료됐다.

회사 측은 ‘Osstem World Meeting 2016 ROME’이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로마 Sheraton Roma & Conference Center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사진).

특히 이번 행사에는 32개국 치과의사 1000여명이 참가해 국제적 치과 임플란트 학술 행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먼저 행사 첫날에는 Dr. David Chong(미국)의 핸드온 코스가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University Rome Tor Vergata에서 이탈리아 현지 치과의사 Prof. Paola, Dr. Tallarico, Prof. Luzi, Dr. Belleggia, Dr. Gatti 등 5인의 명품 강연과 Sapienza Universita Di ROMA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저녁에는

‘Osstem World Night’이 개최돼 이탈리아 민속춤과 오페라 공연 관람, 만찬 등을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세션 1에서는 Dr. Patrick Wu(홍콩)와 Dr. Nicola Baldini(이탈리아), 세션 2에서는 Dr. John DiPonziano(미국)의 강연이 각각 진행됐다.

세션 3에서는 Dr. Warut Muttarak(태국)과 김기성 원장(한국 남상치과의원)의 강연, 세션 4에서는 Dr. David Chong(미국)과 오희균 교수(한국 전남대학교병원)의 강연이 대미를 장식했다.

#한-이 라이브 서저리에 행사장 ‘후끈’

특히 Osstem World Meeting의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임상가들이 각자의 수술을 현지에서 생중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선 조용석 원장(한국 앞선치과병원)이 한국에서 진행한 ‘Crestal and lateral



approach sinus bone graft’ 라이브 서저리가 이탈리아 현지 행사장에 생중계돼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어 세션 3에서는 이탈리아 현지 치과의사인 Dr. Marco Tallarico가 ‘Immediate fixed rehabilitation of maxillary falling dentition using computer-guided template-assisted surgery’를 행사장에 생중계한 것.

라이브 서저리 이후에는 심도 깊은 Q&A가 진행돼 행사장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오스템 관계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임플란트 심포지엄은 Osstem World Meeting을 통한 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컸던 만큼 임상 축제의 뜨거운 장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10회째를 맞이하는 내년 ‘Osstem World Meeting’은 2017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데이몬 시스템 A to Z 빠르고 쉽게 연마

『신흥 ‘Damon System Smile arc를 위한 2-DAY Hands-on Course’』

핸즈온 실습 비용 전액 지원도

데이몬 시스템의 A to Z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틀 동안 빠르게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신흥이 주최한 ‘Damon System smile arc를 위한 2-DAY Hands-on Course’가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조선대치과병원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세미나는 Damon User Group 회

장인 박창석 원장(박창석치과)이 직접 연자로 나서 데이몬 시스템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핸드온 실습 비용이 전액 지원돼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먼저 1일차 세미나에서는 ‘What is the Damon system?’, ‘Damon system 6 keys’를 주제로 데이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데이몬 시스템의 6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다뤘다.

2일차에는 ‘Smile arc bracketing’,



‘CII, CII Bite turbo hands on’, ‘Arch wire application hands on’, ‘CII, CIII Ext & Non extraction cases by using Damon system’을 주제로 데이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론과 실습 강의가 함께 진

행했다. 신흥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Damon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교정 세미나를 개최해 개원의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서울 지

역에서 새로운 내용의 Hands-on 2-day 코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덴탈세미나 사이트(www.dentalseminar.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미나 문의: 080-840-287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중국 치의 메가젠 기술력·R2에 반하다

『메가젠, 중국 방한세미나 호응 커』

(주)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는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간 중국 치의들을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사진).

대구미르치과병원 MINEC 세미나실과 5층 통합진료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시장에서 메가젠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 유저들의 메가젠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심화 학습을 희망하는 요청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중국 엘리트 코스’라 명명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티타늄 멤브레인 i-Gen, 강력한 초기고정력과 빠른 골융합으로 인기 있는 AnyRidge & AnyOne, 최근 치과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R2 GATE를 이용한 Live Surgery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광범 대구미르치과 원장은 Sinus 및 GBR의 케이스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임상의 노하우를 임상자료와 함께 보여준 뒤 이를 라이브 서저리를 통해 확인시켜줘 참석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했다.

김종철 대구미르치과 원장은 강의와 핸드온을 통해 R2 Gat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창훈 원장(이지플란트치과)이 특별 연자로 나와 ‘ISQ Protocol’에 대한 강의와 임플란트 임상케이스도 함께 발표



해 임상에서 진료시 궁금점과 필요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했다.

이번 중국 엘리트 코스는 세미나 뿐만 아니라 미르치과병원 및 메가젠임플란트 본사 공장 방문, 한국 전통 문화 체험 등 메가젠과 한국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중국 치의는 “메가젠의 기술력에 놀랐다. 특히 R2 GATE를 사용한 Guided surgery는 기존의 수술과 달리 빠르고 정확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전세계 국가의 치의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의 방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메가젠은 “해외에 메가젠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방한 세미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한화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최적 상담설계로 고객가치를 높입니다

다이렉트로 만나는 한화자동차보험

운행거리에 따라
최대 30% 돌려받는!
ECO마일리지

내 차 보험료가 궁금할 땐?

1588-8282

ECO마일리지로 만나는
한화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말운전 등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거나 앞으로 좀 더 줄이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화다이렉트 DP와 상의하세요!
환경도 생각하고 자동차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탁월한 선택!

**꼭 필요한 담보설계로
고객가치를 높입니다**

고객의 위험변화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
더욱 안정된 보장혜택을 위해 **꼭 필요한
담보설계**로 고객가치를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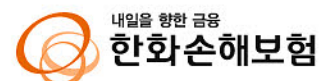
**고객별 전담 상담원제로
계약유지관리를 책임집니다**

고객별 전담 상담원제를 운영하여
고객님의 전담 상담원이 **자동차보험 가입,
사고 접수, 그리고 만기관리까지**
든든하게 책임집니다.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신속 | 10년 이상 장기근속의 전문 상담원
다수 근무
정확 | 자동차보험 제도, 영업, 보상 등
다양한 교육과정 필수 이수
친절 | 전사적인 CS교육, 1년 2회 이상 CS
전문강사 초빙 교육 진행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기일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가산금급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제외))



Relay Essay
제2134번째리
레
이
수
필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지방 작은 동네에서 슬픈 뿔뿔이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에 대한 고통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는데, 마침 퇴근하던 군청의 한 공무원과 부딪혀 둘 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공무원은 어린 아들과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가 있는 젊은 가정이었기에 더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마른하늘에서 날벼락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투신하는 사람과 부딪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세상은 투신자살한 그 대학생과 사망한 공무원과의 묘한 악연을 탓하며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허나 어찌보면 그 젊은이 또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자살한 청년의 남은 가족들은 또 가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남의 가정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가 고의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악의 힘이 작용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공무원의 장례식장에서 투신한 대학생의 유가족들이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했고 공무원의 유가족들은 사죄를 하는 유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며 용서했다고 합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일을 두 집안이 이루어 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임을 느끼게 됩니다.

“퇴근길에 투신자살한 대학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군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은 후속 절차인 순직신청을 보훈처에 할 예정이고, 공무원의 부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다각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언

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결국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힘들 날 이었다고 기억되는 순간이 세월이 흐른 뒤 그래도 살만한 날이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춥습니다. 어릴 적 자주 갔던 단골 이발소에는 이런 시가 걸려 있던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녀 모습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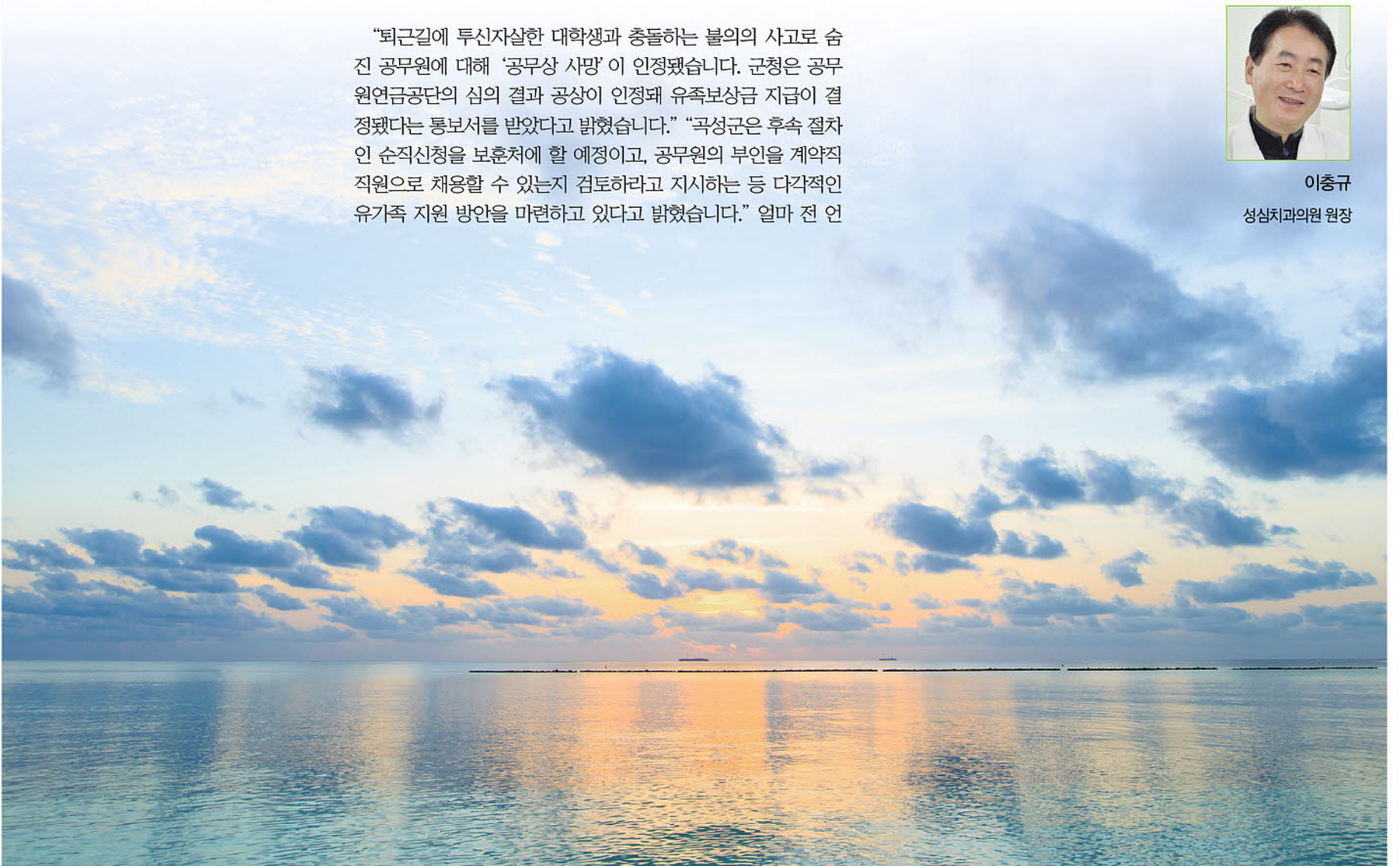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한게 되리니.’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추산: 슬프고 힘들 때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지고 어느새 치유가 되고 있음을 느껴보셨는지요. 기쁨은 나누시고 슬프면 마음껏 울어버리십시오. 혼자문 꼭 닫고.



이충규
성심치과의원 원장



DENTAL114

광고문의

· 담당자 : 이경진 · TEL : 02-2024-9282 · FAX : 02-468-4653

· E-mail : kjhjo@hanmail.net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87-001101 (예금주:대한치과의사협회)

*광고사이즈가격 ◆ 4.4×4.0=4만원 ◆ 4.5×8=8만원 ◆ 9.3×8.2=14만원

초빙

양도

기타

초빙

*치과의사 초빙

*충남 서산시내 소재

*치주과 보존과 전문의

*주 5일 근무 (주 3일 근무 가능)

*연락처 010-6420-3953

(전화 가능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치과 임대

대전 서구 중심상업지

현치과 진료

실평수 32평(2층):주차 180대

매매:1억6000만(매매도 가능)

임대:3000/90만원

010-8436-6925

임대

2층 약35평(신축)

시내중심 최적지

보증금3천/월180

010-5225-3456 건물주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58-1

치과임대

*치과영업의 기반이 잡힐듯

안 임대로 관계는 형편대로

충분히 의논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치:청주시 변화가 본정동

(성안길)

정남향 모서리 코너

치과에 적합하고,

밝고 깨끗한 좋은 건물

043-225-1237

010-3466-0010

구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양원의료재단 치과 오픈예정

*일반/심미보철 경험이 많은 분

*주5일,오전09시 ~ 오후5시30분

*원룸 제공

자세한 사항은

010-2545-6465

치과양도

*부산시 남포동 소재

*변화가 중심상권 특A지

*이사관계로 양도

*인테리어 깨끗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010-3838-0235

1금융권

의사·대출

·개원의, 예정의-추가대출3억

(금리:년3.6%)

·정부자금 3.1% 추가대출 3억 가능

·보증의, 전공의, 공보의

-신용대출 3억

·요양급여담보, 신용보증기금지원

·병원담보대출

·별도수수료 없음

·제1금융권대출 최대한 낮은

금리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doctorzon.net>

(주)닥터존

1544-5159

치과양도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석촌역 4번출구)

*40평(2층),9000만원

010-9483-2866

치과양도

*충남 아산시 소재

*꼼꼼한 선생님

또는 여의사분 환영

*30평, 건강문제로 양도

010-7757-7329

치과양도

무상으로 양도함

치과이전관계로 양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990-13층

*대림동 사거리 코너집

*현 장소에서 40년 진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5만원

*전용면적 25평

010-2082-8120

DR.BANKER

리스/보증기금이 많아도!

기업(사업자)대출이 꼭 있어도!

치과의사

추가대출

(별도비용 발생 없음)

긴급자금 평균 진행

1~2일 소요!

담당 : 김대룡 팀장

010-5780-1252

치과의사 신용 대출

제1금융권 최고12억

▶개원/예정의/봉직의 전문

▶무보증/무담보/추가대출

▶전문컨설턴트 전국 방문

▶안전하게 자금 조달/운영

▶2금융권 긴급 자금 운영

▶최고의 금융 노하우

▶신용등급 상향 관리

(주)KnH메디텍

02)597-6863

병의원 임대

*구로구 오류1동 10-1

(보 5천만원:월200부터)

*1호선 오류동역 오류시장 Bus정류장 앞

*임대평수 실평수 약65평,25평

치과,정형외과,피부과,소아과

010-9075-6149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

"명품인테리어"

하나DESIGN

치과 전문 인테리어

기획,설계,책임시공 및 A/S

대표전화 (02)2633-8211

삼성생명 "파격" 대출

*개원의사 예정의 봉직의-신용담보

요양급여, 신용보증기금 10억이상

*신용, 매출, 소득에 따라 차등

가조회 조회기록 안남음

*보험가입 없음, 취급 수수료 없음

파산, 회생신분도 가능

김수경 (since 1996)

011-234-6877

치과양도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인아

프라자 205호 아파트단지내

*급하게 양도합니다

*2000/100만원

010-3112-6567

광고·문의

치의신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TEL 02)2024-9200

02)2024-9282 (DENTAL 114 전용)

FAX 02)468-4653

E-mail : kdapr@chol.com

광고료 수납 :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887-001101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직일반·간이회생

한의사 · 치과의사

의사 · 의원 · 병원

백승일 변호사

· 공인회계사, 변호사

·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원

· 현, 안산시 국제심사위원

· 현, 법률사무소 서린 대표 변호사

· 현, 회계사무소 서린 대표

조석영 변호사

· 공인노무사, 변호사

· 현, 보험인협회 자문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서린 대표 변호사

· 현, 노무사무소 서린 대표 노무사

조영민 변호사

·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역임

· 현, 법률사무소 서린 대표 변호사

의료인과 함께 하는 "행복" 회생카페 <http://cafe.daum.net/dasisalja>

법률사무소 서린

세무회계사무소 · 노무사무소

교대역 12번 출구

02 · 597 · 5515

데일리덴탈

빠른소식, 풍성한 입을거리

필요한 치과 정보, 치과의사 독자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www.dailydental.co.kr



치과 의료분쟁사고의 해결!

현대해상이 함께 합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작용)**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사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정된 진료 환경을 마련해 드립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엠피에스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 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2007년부터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이제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병원 경영의 **기본**입니다.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
Tel 02-762-1870 / Fax 02-762-3364

H 현대해상화재보험

www.ibsimplant.com

신개념 Magic Fin thread 적용! MAGIC FC

· Magic Fin Thread

- 뛰어난 응력분산
(나사산 각도 2°의 사각나사 형태)
- Self threading에 의한 쉬운 식립
- 빠른 골치유 : 식립시 Bone chip의 발생과 골압박이 발생되지 않음
- 골질에 관계없는 초기안정 확보

· 초기 안정과 식립성을 고려한 Taper 구조

- 식립성의 용이성과 형태적인 초기안정을 얻을수 있는 최적의 경사

· Platform switching

- 염증대의 극소화, 하방 이동 방지
- 변연골 흡수 방지

· Pitch 1.1mm

- 나사산 사이 충분한 골량 확보, 충분한 골 접촉면적 확보
- 나사산 사이 치조골 강성 향상
- 나사산과 치조골 탄성차이 줄여줌
- 강한 교합력에도 미세골절 가능성 거의 없음

■ 형태적인 접촉에 의한 초기안정 ■ 식립시 Bone Chip 발생 없음 ■ 식립시 골압박 없음

■ 넓은 표면에 의한 부하의 감소 ■ 전단력의 발생이 거의 없음 ■ 나사산 사이의 충분한 골량 ■ Self threading에 의한 식립

Hands-On SEMINAR

날 짜	시 간	장 소	문의신청
07.09(토)	16:30	인천 부평 우림라이온스 밸리 A동 2층 세미나실	010-9079-9042
07.11(월)	19:00	천안 ON City Hotel(2nd floor ballroom)	010-6483-5981
07.13(수)	19:00	군산 더파티스타(모나코빌딩3층)	010-5848-2875
07.14(목)	19:00	광주 광주치과신협	010-3644-1983
07.16(토)	16:00	서울 강남성모병원 본관 604호	010-2225-0164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0로 44-19 (305-510) 대표전화 042-933-2879 대표팩스 042-933-2881

서울본부 02-466-9117

대구동부지사 070-8711-2879

부산동부지사 070-7333-3458

경기남부지사 031-238-2879

대구서부지사 070-8711-2879

부산서부지사 070-7333-3458

경인지사 070-4063-2875

전북지사 063-229-7024

경북지사 070-8711-2879

대전충청지사 042-933-2879

광주전라지사 062-432-7528

경남지사 070-7333-3458